Entertainment p/17



'앵그리맘' 연기호평 김희선

metro®

메트로 2015년 5월 28일 목요일 제3224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1



메시, 스페인 '올해의 선수'

당나라 병무청



입영신청 41번 탈락한 경우도
병무청 "준비 부실 본인책임"
민원 제기 때만 슬쩍 조치

"군대 들어가기까지 저는 21번 떨어지고, 친구는 41번 떨어졌어요."

27일 군 복무 중인 A씨(21)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겪은 입영신청제도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본지는 입영 장수생 문제를 취재하던 중 A씨와 만났다.

A씨는 자신이 번번이 떨어진 이유를 아직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저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석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다.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병무청은 원하는 보직에 맞는 스펙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다. 운전병을 원한다면 운전면허증은 기본이고 입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추가적인 스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친구는 대학 1학기 마치고 자퇴 후 군대 가는데 2년을 허송세월했다"며 "군대 미필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구는 어떻게든 군대에 가기 위해 육·해·공·해병대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신청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스펙과는 무관한 경우에도 모두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병무청의 설명과는 다른 현실이다. 특히 A씨는 "나중에는 친구에게 (지방)병무청에서 전화가 왔다"며 "친구에게 '미안하다. 최대한 빨리 군대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그 동안 본지와의 접촉에서 입영신청 결과는 공개 추첨에 따를 뿐 신청자 개인의 민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견지해 왔다.

A씨의 친구는 현재 훈련병 신분이라 접촉이 불가능했다. 본지는 이날 병무청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41번 떨어진 사례가 있는지는 물론이고 21번 떨어진 사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종전의 병무청 공식입장과는 달리 지방병무청에서 개인 민원을 처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입영) 소요가 생기거나 새로 빈자리가 나면 지방병무청에서 (민원인을) 입영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몇 번 떨어져야 (입영조치를) 해주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는 설명이다.

민원 자체를 인지하는 일도 민원인의 전화나 우연한 경로에 의지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라는 이야기다. 병무청이 그토록 강조하던 원칙은 없었다.

게다가 이 담당자는 이후 공식입장이라며 말까지 바꿨다. 그는 병무청 공식입장에서 "지방병무청에서는 (입영 장수생을) 돕는 차원에서 공석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줄 뿐"이라고 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병역 특혜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병무청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병무청이 입영신청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했던 이유다.

하지만 입영 장수생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병무청이 '기계적 형평성'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병무청은 입영 장수생 대책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본인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왔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여성파워 100인… 朴대통령 11위·이부진 100위



#11 Park Geun-hye

+ Follow (34)

President, South Korea

Age	63
Residence	Seoul, South Korea
Citizenship	South Korea
Marital Status	Single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Sogang University



#100 Lee Boo-Jin

+ Follow (20)

Real Time Net Worth As of 5/26/15

$2.9 Billion

President, Cheil Industries

Age	44
Source Of Wealth	computer services/tourism
Residence	Seoul, South Korea
Citizenship	South Korea

포브스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부진 호텔신라사장을 소개하고 있는 자료. 이 사장은 지난 25일 현대산업개발과 손잡고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 출범을 선언했다. 한류와 관광,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도심형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포브스 홈페이지

美포브스 선정

朴, 작년 46위서 도약
이부진, 올해 집중 조명

박근혜 대통령과 이부진 호텔신라사장이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에서 각각 11위와 100위를 차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46위에서 껑충 뛰어올랐고, 이 사장은 첫 진입이지만 올해 포브스의 집중 조명을 받을 만큼 국제적 위상이 부각되고 있다.

포브스는 26일(현지시간) 선정자에 대한 개별 설명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성마르고 핵무기로 무장한 이웃(북한)을 두고 세계에서 14번째 경제대국을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총리 뇌물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한국경제도 덩달아 어려워지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중국·일본과는 환경협약을 체결했으며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장에 대해서는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일 년간 병원에 있는 동안 다른 남매들과 함께 광대한 삼성제국에서 더욱 큰 역할을 맡았다"며 "작은 이건희로 불리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또 삼성SDS 지분 3.9%와 제일모직 주식 약 8%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 최고 여성 부자라고 덧붙였다. 포브스는 이 사장의 재산을 29억 달러(3조2000억원)로 평가했다.

포브스는 올해 이 사장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앞서 '2015년 한국 최고 부자 50명' 중 13위로 선정했고, '2015년 세계 백만장자' 선정에서는 847위(한국 내 9위)에 올려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포브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했다. 메르켈 총리는 5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지난 12년간 무려 10차례나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메르켈 총리가 독일을 유럽에서 가장 눈부신 경제대국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이슬람국가(IS)에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위에는 미국 대선출마를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선정했다. 포브스는 클린턴 전 장관의 등장으로 메르켈 총리의 아성이 깨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04년 이후 100대 여성 순위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이밖에 상위 10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 의장,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 사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 수전 보이치키 유튜브 최고경영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등이 포함됐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FT "삼성그룹, 합병에 헛돈 썼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자(현지시간) 칼럼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 "삼성그룹이 헛돈(money for nothing)을 썼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칼럼의 제목 자체가 이같은 문구였다.

FT는 이날 칼럼에서 "이번 합병은 해당 주식소유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했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주가 상승 등에 따른 더 큰 이익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오너 일가에게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합병 이후에 오너 가족이 삼성전자(그룹의 주력) 지분의 16% 이상에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같은 변화가 가치를 창출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양사의 합병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단순화와 투명성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비용절감이나 매출 증대 등의 합병 시너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삼성그룹은 이번 합병을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건설은 삼성물산 매출의 50%, 제일모직에서는 25%의 비중을 차지한다. 삼성물산건설부문의영업이익률은 1.5%로 제일모직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합병을 통해 개선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FT는 "다만 숫자로 제시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실제 양사는 오는 2020년 매출 목표로 지금보다 70% 많은 60조원을 제시했지만 매출 목표를 달성할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병형기자



미국 방송업계 지각변동 미국 3~4위 케이블 사업자인 차터커뮤니케이션스가 26일(현지 시각) 2위 업체 타임워너 케이블을 55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번엔 진짜?…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고치겠다"

20대 국회부터 적용 목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재개정에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현재의 여야 대립 구조 속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의사결정에 요지부동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차기인 20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20대(국회)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을 어느 정도 개혁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계속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회로 갈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 후배들과 20대 국회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개정) 타이밍"이라며 "20대 국회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서 최고위원이 말한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20대 국회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핵심 당직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에서 선진화법 개정 문제가 공유된 만큼 탄력을 받을 것 같다"며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칼 빼든 김상곤… '계파모임 중단' 명령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새정치연합 혁신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부터 혁신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패권과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파의 모임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이 처한 현실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절벽 위에 매달려 있다"며 "국민과 당원이 내밀어 준 마지막 한 가닥 동아줄을 부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권력을 소유하겠다는 패권과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 우산(중국 제나라에 있던 산)의 싹을 먹어치우듯 새정치연합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혁신위원회의 앞 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각오에 대해서는 "정말 길지 않은 기간"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오직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원회는 오직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로 혁신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정경기자 jkljkl@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뉴시스

野 "연금 논의서 문형표 어떻게든 배제"

복지수장, 복지 핵심의제 논의서 배제 위기

우리나라 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수장이 복지의 핵심 의제인 공적연금 논의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방송에 나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문 장관) 해임을 새누리당에서 할 수 없다면 본인(문 장관)을 그쪽(사회적 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배제 이유에 대해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적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문 장관의 말씀은 엄청난 독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판이고 노후 소득의 사회적 안전망의 최종적인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을 잘 지키고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문 장관은 지난 6일 공무원연금 합의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직후 야당이 공무원연금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보험료율(현 9%)을 16.7%까지 2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이 여야 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합의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회에서 마련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에 문 장관이 포함될 경우 자유로운 논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여야 간 공적연금 협상안이 정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문 장관은 (연금 자체가 아닌) 연금 재정을 중요시하는 연금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전문가는 복지 기능을 강조하는 이들과 연금의 재정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로 양분돼 있다. 문 장관의 정책은 후자라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한 가지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경기자 jkljkl@metroseoul.co.kr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최근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환자가 5명 발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보건당국 수장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방역에 구멍이 나면서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통신기본요금 폐지해야"… 여야 회동 추진

당정 통신정책 '한계 분명'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부 여당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보완책으로 기본요금 폐지와 중저가 단말기 보급확대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정책의 문제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공감 가계 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 토론회에서 "월 2만9900원 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실제 요금은 월 3만2890원으로 2만원대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는 부가세를 포함해도 2만6000원 수준의 비슷한 요금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은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현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서 "기업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다보니 소비자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쪽으로 개선하지 못했다"며 "이동통신사가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3개 이동사가 담합해 있고 독과점이 완성돼 시장원리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는 등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호도했지만 그것의 바닥이 드러났다"며 "원내대표 간 통신비 인하 관련 회동을 한번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경기자

美·中 갈등 심화… "전쟁도 불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갈등관계에 있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 개막 이후 '전쟁 불사론'까지 외치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공산당 기관지) 자매지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26일자 사설을 통해 "만약 미국의 마지노선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 활동을 저지하는 것이라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중국)는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 그런 때가 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충돌의 강도는 통상 마찰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세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남중국해 해역에서 중국이 인공섬 건설과 섬 확장 공사를 단호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호소와 함께 이를 중국의 '가장 중요한 마지노선'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중국은 해양석유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인공섬은 석유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지난 20일 중국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초계기를 보내 분쟁해역 상공에서 감시 정찰활동을 벌였다. 사설은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국방백서를 통해 육·해·공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해군의 작전범위를 근해에서 원양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일은 신밀월 개막 이후 분쟁 해역 진출에 더욱 적극적이다. 일본의 해군까지 나서 훈련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미·일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송병형기자



시리아 정부군-IS, 팔미라 유전지대서 격전 이슬람국가(IS) 격퇴의 명운이 걸린 '라마디 대첩'이 시작된 가운데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20일 IS에 빼앗긴 팔미라를 되찾기 위해 IS와 교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포를 쏘는 IS무장트럭. /연합뉴스

'재산신고 누락·늑장 납세' 의혹에 황교안 함구

"청문회서 해명하겠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재산신고 누락과 늑장 납세 의혹이 제기됐지만 황 후보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남편은 17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인은 6년 사이에 6억원 이상의 돈을 불렸다니 이 부부가 재테크의 달인이 아닌가 싶다"며 "황 후보자 측은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황 후보자 부인이 급여를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급여만으로는 이런 거액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보증금으로 돈을 불렸다는 해명을 고려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뉴시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황 후보자의 딸 성희씨가 황 후보자가 총리로 내정되기 불과 3일 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증여 받은 지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될 것 같으니 눈치 납부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금전거래가 3월에 있었음에도 채권 확인서는 총리 후보자로 발표된 당일인 21일에야 뒤늦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정경기자

1년째 게걸음 '카드정보유출' 손배소 더 지연될 듯

변호인 위임 확인 증거 내라며 시간만 끌어
지지부진 민사재판, 카드사 측 고의 의심돼

신용카드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년째 답보상태인 가운데 관련 형사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재판 결과가 현재 더디게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이 민사 소송 재판에 계속된 재판 연기 신청 등 카드사들의 고의가 반영됐다고 보고 7월부터 본격 진행될 형사 재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국민변호인단과 법무법인 바른 등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 반 동안 변호사를 위임하기 위한 확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지연됐고 경우에 따라 2~3차례 변론이 열렸을 뿐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이 같은 원인을 카드사들의 의도적 재판 지연 행위로 보고 있다.

국민변호인단의 박영주 변호사는 "상대(카드3사) 대형로펌에서 피해자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변호인으로 추인했다는 확실한 위임 증거를 대라고 한다. 이는 명백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이 보내준 유출정보 화면 캡처자료를 위임확인 근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서툰 연령층도 다수 있어 피해자 모두의 관련 캡처자료를 법원에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변호인단의 김형남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변호인단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NH농협카드 소송 1차 변론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전하며 입금내역으로 대신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캡처본으로 위임사실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재 국민변호인단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총 4만5202명이다. 변호인단은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캡처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소송에 참여한 바른 측도 "1차 소송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도 "카드사의 의도적 재판 지연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은 현재 참여인원 2508명을 대리해 6건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바른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죄목이 명확한 보완 담당자들을 7월에 다시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바른은 이 대목에서 카드사들의 재판 지연행위를 지적했다. 이미 조사를 마친 사람들을 민사 법정에 다시 불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법원 측도 청구 인원이 많아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되고 제기한 소송만 지난해 9월 기준 90여 건에 이른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가액도 1000억원 이상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은 카드사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7월 1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카드3사 측 변호인 일부가 기일에 임박해 선임돼 공소사실 등에 대한 검토시간 확보차 법원에 연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카드사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주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유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28일 기소됐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내연남 농약 살해 여성 '무죄'

대법 "증거 부족·동기 불분명"

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대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내연관계인 피해자 A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는 박씨가 A씨를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가 박씨에게 헤어지자며 박씨 이름으로 사줬던 아파트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상황이어서 재산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농약이 담겨 있던 음료수 병에서 박씨의 지문이 발견된 점, A씨가 숨지기 직전 자살할 생각으로 농약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점 등이 유죄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명백하지 않고, 유죄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살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농약을 건네받아 술인 줄 알고 마신 것이라면 깨어난 직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해야 하지만 수차례 진술에서 단 한 번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했어도 생선 썩는 독한 냄새가 나는 농약을 실수로 100cc나 마시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홍원기자 hong@

法 "대입 합격 빌미로 1억 뜯은 교수, 해임 적법"

서울 한 사립대 교수가 예체능계 수험생 부모를 상대로 대입 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는 빌미로 돈을 뜯고 해임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9~11월 A씨의 딸이 자신이 속한 대학 무용학부 입학시험에 불합격해 재수 중인 것을 알고 A씨에게 딸을 합격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씨는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형은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박씨의 진술 변화를 살펴보면 원고가 박씨에게 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한 뒤 피해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나눠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이 속한 대학교의 입시 과정에서 수험생을 둔 부모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자 한 비위행위는 교육자로서 요구되는 직위에 비춰 비난의 정도가 크다"며 "해임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웰빙 채소 '함양 여주' 수확 27일 경남 함양군 안의면 시설하우스에서 농민들이 웰빙 채소 여주(쓴 오이)를 수확하고 있다. 박과의 덩굴 식물로 쓴맛이 강하지만 비타민C 성분이 레몬의 5배나 많아 혈압개선과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기준 통일… 장애 6급 이상

학교별 기준차 혼란 감소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의 공통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학교별로 선발기준이 달라 수험생이 겪었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통기준에서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예컨대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이상으로 해온 법학전문대학원은 6급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 공통기준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다.

현재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는 등 학교별로 적용기준이 다르다.

교육부는 특별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교육부는 이 공통기준을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공통기준 마련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작년 12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1~4월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 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의 2015학년도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133명이고 2014학년도는 132명, 2013학년도는 128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전형 공통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과 특별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되고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성완종 측근들 "자료 은닉, 成리스트와 관련 없다"

檢 "증거물 수사·로비의혹 사실 여부 규명하는 것"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가 재판에서 '성완종 리스트'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이 문제(증거은닉 등)가 불거진 것인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완종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지, 리스트 발견 후에 관련 자료를 은폐한다든가 하는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었을 당시는 성완종의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성완종의 자금과 관련해 중요한 회계 책임자도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성완종 사망 후 리스트에 나온 이름에 대해 혹시 피고인들이 뭔가를 은닉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자료를 은닉했다는 내용이 성완종 본인 사건인지 다른 사람(리스트에 거론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따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현재 의혹이 제기된 사항은 특정인에 대한 성완종의 로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인데, 증거물 폐기와 은닉에 대한 수사는 로비 의혹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재판의 사건은 수사팀(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 발족 초기의 수사 성과이며 본건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입건 대상자나 관련자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 시점이 성완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이므로 자원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의 효과가 나타난 게 맞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벌성이 적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상무와 이씨 측은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의 첫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치우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회사 내부 CCTV를 끄라고 지시하고 관련 자료 등을 창고로 옮긴 뒤 파쇄기로 갈아버린 혐의 등에 대해서는 "CCTV는 다른 직원이 '끌까요?'라고 물어서 승인한 것뿐이다. 자료를 파쇄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이달 11일 구속기소됐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작년 서울지하철 성범죄 1356건… 사당역 '1위'

2호선 매년 최다 신고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1356명이 성추행이나 도촬(몰래 사진 찍는 것)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호선 사당역에서 성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725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631건 발생해 총 1356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서울 지하철 성범죄는 2012년 1031건, 2013년 1307건, 지난해 135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1~3월까지 27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호선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신고 됐다. 2호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12년 314건에서 2013년 348건, 지난해 45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2호선 다음으로는 4호선(146건), 7호선(146건)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별로는 지난해 사당역에서 119건으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사당역에 이어서는 서울역(90건), 강남역(88건)이었다.

성범죄 최다 발생 역은 최근 3년간 매년 바뀌었다. 2012년에는 강남역(89건)이, 2013년에는 서울역(116건)이 차지했다.

지난해 성범죄 관련 범인은 연령별로 30대가 3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304명), 40대(174명)가 뒤를 이었다.

50대와 60대는 각각 70명, 31명이었고 70대 이상도 12명 있었다. 10대도 28명이나 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4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직(181명), 학생(104명) 순이었다. 또 군인(7명)과 경비원(6명), 공무원(5명)도 포함됐다.

시간대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8~10시 사이에 전체 성범죄의 26.7%인 296건이 발생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6~8시까지도 271건(24.4%)이 신고됐다. 출·퇴근 시간대에 성범죄의 절반이 발생한 셈이다.

이노근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안전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hong@

'삼성세탁기 파손 소송' 檢-LG 사사건건 대립

검찰과 LG전자가 삼성세탁기 파손과 관련된 검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파손사건 소송에서 검찰과 LG 측 변호인은 검증을 위한 세탁기 대수, 방법 등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한 3대만 검증을 요청한 반면 LG 측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파손 혐의 세탁기 5대 전부를 현장 조사해야한다고 맞섰다. 또 문제가 된 도어부분 외에도 세탁기 걸쇠 부분의 흠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결함이 조성진(LG전자 H&A 사업본부장) 사장의 행위 때문인지 전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LG측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 세탁기의 상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통상 운송 과정에서 손상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는데 검찰이 압수한 세탁기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세탁기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됐는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 세탁기에 대한 검증은 동의한다"면서도 "운송 과정에서의 손상 방지를 위한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 세탁기가 탄성재질이 좋아 1년이 지나서 손괴된 부분이 오히려 회복됐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공한 당시 동영상을 비롯해 CCTV 등 관련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LG전자 측은 삼성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가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채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와 양측은 내달 17일 오전 11시 20분 최종준비기일을 갖고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해당 세탁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LG측 요청에 따라 검증은 영상으로 남길 계획이다.

앞서 조 사장 등 LG전자 직원들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기간 중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후 화해 의사를 밝히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했다.

/연미란기자 actor@

경남기업, 반기문 조카 소속 회사에 손배소 소송

경남기업이 반기문(71) UN사무총장의 조카가 재직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경남기업 관리인이 베트남 랜드마크타워(랜드마크72) 매각주간사였던 미국 부동산 업체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해 매각주간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은 반 총장의 조카인 반주현(데니스 반)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곳이다. 이 회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반 총장에게 랜드마크72 매각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씨는 랜드마크72 매각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었던 카타르투자청과의 중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경남기업은 관계회사인 경남비나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매각과 관련해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경남기업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전이었다. 그러나 카타르투자청을 상대로 한 매각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경남기업의 자금사정은 극도로 악화됐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이후 매각 과정에서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 경남기업에 제시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기업은 지난 15일 자문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의 매각주간사 계약을 해지했다.

카타르투자청은 매각주간사 계약 해지 직후 랜드마크72 인수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도로 법률자문을 거쳐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을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홍원기자

PC본체만 훔친 30대, 출소 4개월만에 또 쇠고랑

컴퓨터 본체만 골라 훔쳐 생활비를 충당한 30대 절도범이 출소 4개월만에 다시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상습절도와 준강도 혐의로 박모(3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2월 11일부터 5월 21일 사이 강동구 일대 상가를 돌며 컴퓨터 수리점과 식당, 부동산 등 16곳에서 컴퓨터 본체와 현금 등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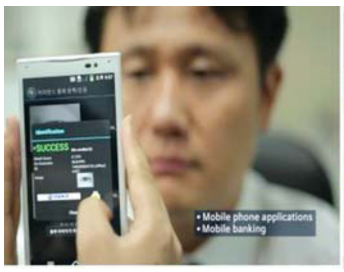
그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 40분께 강동구 성내동의 한 컴퓨터 수리점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치다 점주의 아버지(66)에게 들키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박씨는 2013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형기를 마치고 올해 1월 출소한 박씨는 전자상가 직원으로 취업했으나 보름만에 그만뒀고, 일용직 노동에도 적응하지 못해 범행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유선준기자

핀테크 시장 잡아라… 금융권 파상공세

규제 완화·문호 확대 성장 가속화 조짐 보여







/각 사 제공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 물건을 결제하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도 계좌이체를 한다. 또 개인의 소비패턴 등을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받고 고객의 힘을 모아 금융사기도 방지한다. 이는 공상과학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금융회사를 통해 선보인 새로운 금융 서비스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회사에서는 핀테크 시장 선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핀테크로 대변되는 전세계적인 IT·금융융합 트렌드와 모바일 기술의 성장,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이들 회사는 핀테크 업체와의 업무제휴부터 지원센터 개설, 자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성장의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대폭 완화한데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호를 확대하고 있어 핀테크를 향한 금융사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차 데모데이(Demo-day)' 행사를 열고 본인 인증 방식을 확대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 의무 사용 조항을 폐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보안수단을 적용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신용카드 결제 시 다양한 생체 인증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대체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비밀번호나 서명 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이 가능해진다.

실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사는 핀테크 기업과 신기술 개발에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핀테크 기업 이리언스와 손잡고 홍채를 활용한 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를 개발키로 했다.

이는 금융회사에 가지 않고 홍채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해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하나은행은 영세사업자의 실시간 매출 정보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대출업무에 활용하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현대증권은 특허권 가격 산정 시스템을 각각 개발하는 내용의 MOU를 핀테크 기업들과 맺었다.

우리은행은 더치트와 집단 지성을 활용한 사기방지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기술은 금융소비자가 계좌이체를 할 때 기존 사기 피해자의 제보 등에 근거해 이체 상대방 계좌가 사기에 활용된 적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알려준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시범 모델인 '위비뱅크(Wi Bee Bank)'를 내놓기도 했다.

위비뱅크는 별도의 모바일 앱인 '위비뱅크'에 탑재돼 중금리 대출과 간편송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검증하게 된다.

전사적인 차원에서 핀테크를 지원하기도 한다.

신한금융그룹은 핀테크 협업 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 랩(Future's Lab)'을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에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이 참여해 잠재력 있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외환은행은 핀테크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부산·대구은행 등은 다음카카오와 손잡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1:1 멘토링 협력 관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와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6월 중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정부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금융위, 현대해상-현대하이카 합병 승인

현대해상이 현대하이카의 영업 전부를 인수할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간의 영업 양수도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보통예금 등 현금과 후순위 차입금 상환을 위한 매도가능증권 일부, 후순위채무 300억원과 선급법인세 등 양수도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일부 자산과 부채는 영업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토록했다.

현대하이카는 지난 2005년 현대해상에서 100% 출자해 만든 자동차보험 전문회사다.

앞서 현대해상은 현대하이카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해왔다.

본인가 승인에 따라 현대해상은 내달 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과 조직개편 등 내부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7월 1일부터 영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독일계 회사 에르고 퍼지시어룽 아게(ERGO Versicherung AG)가 다스법률비용보험의 대주주가 되는 것과 농협손해보험이 622억원의 자본금으로 권리보험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것도 허가했다. /백아란기자



"서울구경 왔어요" 우리은행은 도서벽지 어린이를 초대해 서울을 견학하는 '도서벽지 어린이 서울초청 행사'를 실시했다. /우리은행 제공

KB국민은행 "잠자는 예금 찾아가세요"

KB국민은행은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내달 말까지 '휴면 예금 환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휴면 예금이란 계좌의 최종 거래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5년 동안 거래가 없어 예금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계좌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휴면 계좌의 잔액을 통장에 일괄 환급할 예정이다. 이외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TM을 실시하고 영업점 내점 시 POP-UP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간 휴면 예금 보유 고객에게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상시 확인해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캠페인은 환급 가능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4월 말 銀 가계대출 535조… 9년만에 '최대폭'

동기간 연체율 소폭 상승 개선 추세는 지속되는 중

저금리와 주택거래 호조로 지난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이 9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이 4월 말 현재 1293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조원(1.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대출은 534조9000억원으로 4월 중 8조8000억원이 많아졌다.

이는 3월 증가폭인 4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4월 실적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여기에는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주택매입 등을 한 가계가 많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4월 중 서울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3900건으로 지난해 동월 8만5000건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대기업 대출은 183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었고 중소기업 대출도 543조4000억원으로 6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76%로 전월 말의 0.69% 대비 소폭 상승했다.

연체율 상승은 월중 신규 연체발생액(2조원)이 연체채권 정리규모(1조원)를 상회한데 주로 기인했다고 금감원 측은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연체율이 한 달 전보다는 다소 올라갔지만 1년 전과 비교해보면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취약 업종의 부실화 가능성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리스크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이제 당당하고 상쾌한 당신"

금연자들의 전성시대

국민건강보험이 당신의 금연을 응원합니다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금연치료 지원대상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의료기관

-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병 ·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 금연치료 의료기관 정보는 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금연치료 지원내용

-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 상담료의 70% 지원
-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의 30~70% 지원

인센티브 지급

-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 성공자와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예정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well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이재용 지배력 강화?… 삼성전자 주가는 뚝

신고가 경신한 제일모직·삼성물산과 '상반' 지주사 전환·상속 문제 해결 관전 포인트



제일모직이 지난 26일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한 이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튿날인 27일에도 이들 회사는 상승 마감했으나 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는 하락하면서 '합병 이슈'에서 소외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결의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그룹 내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반해 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을 1대 0.35 비율로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 제일모직이 신주를 발행해 삼성물산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이다. 합병 기일은 오는 9월 1일이고, 합병 법인명은 삼성물산이다. 합병 후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으로 이어지던 복잡한 출자구조에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거느리는 구조로 단순화된다.

합병 법인이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에도 적극 나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이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각각 14.98%, 14.83% 상한가까지 끌어 올렸다.

이튿날인 27일에도 제일모직은 전일대비 2500원(1.33%) 오른 19만500원을 기록했다. 장중 한때는 21만5500원까지 치솟아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물산도 2200원(3.46%) 오른 6만5700원으로 장을 마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제일모직 지분 23.24%를 보유 중이고, 삼성물산은 그룹 계열사의 대주주다. 특히 이 부회장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0.57%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 4.06%를 가진 2대주주여서 합병 후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영향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병은 삼성그룹 3세가 제일모직의 지분을 통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무리 없이 확보했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지주사 전환은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편은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그룹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요 계열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합병 이슈'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관심 밖에 머물러있다.

27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만8000원(3.52%) 내린 131만4000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달 들어서만 6.14% 하락한 수치다.

박용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합병 이후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3.38%와 삼성생명 지분 20.76%의 상속 문제가 남아있다"며 "상속에 맞춰 이 부회장의 삼성SDS 처리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마무리되더라도 단시간 내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합병 법인을 지주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상장 자회사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자금 조달이 불투명하다. 더불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삼성생명 등 금융사 지분을 팔아야 하는데, 금융업에 애착을 보여 온 삼성그룹으로써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한 뒤 전자부문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나 가능성이 낮아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수혜는 제일모직·삼성물산>삼성SDS>삼성SDI>삼성전자 순이 될 것"이라며 "오너일가가 삼성전자 지배력을 넓히기 위한 선행 조치로 삼성SDS의 지분가치 확대, 삼성SDI의 재무구조 개선 등에 관심을 보이면서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초저금리 장기화… 다시 뜨는 '이색펀드'

통일·농산물·명품펀드 등 12~14%대 수익률로 인기

전문가 "분산투자로 접근 포트폴리오 10%내 투자"



초저금리 장기화 속에 분산투자의 대안으로 '이색펀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평범함을 거부한 투자자들을 위해 '통일펀드' '농산물펀드' '명품펀드'까지 투자 대상과 주체 뿐만 아니라 명칭도 독특하다.

과거에도 이색펀드는 있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물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워터펀드'를 비롯해 와인에 투자하는 '와인펀드' 등이 등장해 펀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한동안 뜸하던 이색펀드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색 펀드는 작은 범위의 섹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주력 펀드가 아닌 분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에서 판매하는 '플랜팜 펀드 시리즈'는 운용·판매보수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귀농 귀촌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한다. 가입자에게는 귀농 귀촌 관련 정보와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1년간 12.7%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목돈 만들기에 적합한 적립식 펀드인 'NH-CA플랜팜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과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좋은 'NH-CA플랜팜2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등 2종으로 구성됐다. 핵심종목 30개 내외에 투자한다.

IBK자산운용의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은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해외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의류, 보석, 화장품 등을 넘어 자동차, 호텔, 크루즈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섹터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루이비통, 프라다 등 글로벌 명품 생산기업의 주식에 투자한다. 이 펀드도 최근 1년간 14.40%의 수익률을 올렸다.

'통일펀드'도 이색펀드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통일펀드 가운데 인기몰이 중인 상품은 신영운용에서 개발한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C2형'을 비롯한 5개 상품이다.

이색펀드 역시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이색 펀드는 다른 주식형 펀드와 함께 가져가면서 분산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결국 펀드 포트폴리오의 5%, 최대 10% 이내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

펀드 전문가들은 "이색펀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선 투자 메리트가 있다"며 "운용보고서와 운용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최대 연8.7% 수익" 하이투자증권은 28일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을 총 1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하이투자증권 제공

동화엠파크홀딩스 등 8개사 'K-OTC' 신규지정

<장외주식시장>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동화엠파크홀딩스 등 총 8개사를 장외주식시장인 K-OTC시장에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신규 지정 종목은 동화엠파크홀딩스와 미성포리테크, 비앤비성원, 삼보이엔씨, 삼중테크, 오리엔트전자, 풍림산업, 한일건설 등이다.

협회 측은 "이번에 지정된 곳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12월 결산법인 중 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목들로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오픈타이드코리아는 다음달 4일 지정돼 8일부터 거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OTC시장 거래 종목은 138개 종목으로 늘어난다.

K-OTC시장은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을 강화해 지난해 8월 25일 출범해 지난달말 누적 거래대금이 3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국내 대표 장외주식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새로 거래되는 종목 중에는 오픈타이드코리아와 동화엠파크홀딩스 등 비상장 우량기업 뿐만 아니라 과거 시장 침체로 상장폐지나 법정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고 개선된 기업들도 포함됐다.

협회 관계자는 "거래 기업이 늘어나면서 잠재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기고, 기존 주주들은 자금회수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정 대상 기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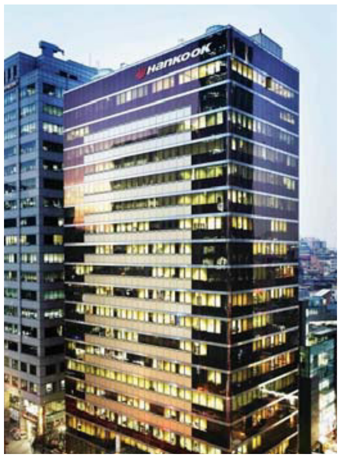
한편 회사분할 절차를 진행 중인 오픈타이드코리아 주식은 6월 4일 주권 교부를 마친 뒤 같은 달 8일부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테스트드라이브센터 불발…

한국타이어-상주시, 갈등 가속화

한국타이어, 주민 반대 이유 MOU 파기· 손해배상 소송

市 "승인 반려한적 없어 주민 설득했는 지 의문"



한국타이어 본사.

한국타이어와 상주시가 주민들의 반대로 투자양해각서(MOU)를 파기하며 책임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27일 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달 17일 경상북도와 상주시에 '상주 공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양해각서의 해제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한국타이어는 서울중앙지법에 2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 9월 경북도·상주시와 공검면 일대 130만㎡(40만평) 용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테스트드라이브센터와 연구기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당시 상주시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 등 경제적 효과가 연간 200억~300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성백영 전 상주시장은 한국타이어 유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청에 공무원으로 조직된 '한국타이어 특별팀'까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국타이어를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상주시의 일부 주민이 "한국타이어 테스트드라이브센터가 환경오염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유치를 반대하고 나서며 문제가 생겼다. 이들은 상주시가 제공하는 용지에 비해 고용인원이 단 350여명으로 매우 적으며 타이어 마모에 따른 미세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거액을 지출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회사가 입은 손실액을 보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상주시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반려한 점, 현장 지원 인력을 철수한 점, 주민에 대한 토지보상 지원 절차를 중단한 점을 꼽으며 상주시를 비난했다.

이에 상주시 관계자는 "한국타이어는 허가신청서류를 내지도 않았다"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반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한국타이어 특별팀이 경제기업과에 포함됐을 뿐 인력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관련 업무는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행시험장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가 기업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타이어에서는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애초에 MOU를 체결할 때 주민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은 상주시의 몫이었다"며 "상주시 주민과 타지에 있는 한국타이어 공장 등을 탐방하며 직접 눈으로 보여줬는데 한국타이어가 어떻게 더 노력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국타이어의 MOU 파기에 주민 간의 갈등도 골이 깊어지고 있다.

상주지역 16개 자영업 단체는 이달 초 '한국타이어 재유치를 위한 시민모임 운영위원회'를 결성했다.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상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타이어가 상주에 올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상주시가 언론공방을 펼치며 한국타이어 투자유치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삼성전자 전시 도우미가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월드IT쇼 2015 삼성전자 부스에서 88형 SUHD TV와 갤럭시 S6 엣지 아이언맨 에디션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LG전자 홍보 모델이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월드 IT쇼 2015 LG전자 부스에서 77형 울트라 올레드 TV와 G4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삼성·LG '월드 IT쇼 2015'서 자존심 경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월드 IT 쇼 2015'에서 나란히 전략 제품을 전시하며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양사는 27~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 IT쇼'에 대규모 부스를 마련하고 첨단 제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제22회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시상식에서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타이젠 운영체제(OS)를 적용한 SUHD TV와 다양한 디스플레이, 오디오 제품, 갤럭시 S6, 갤럭시S6 엣지, 프린터 제품 등 IT 제품들을 전시했다. 전시장 입구에는 88형 SUHD TV와 유명 산업디자이너 이브 베하가 디자인한 82형 TV S9W가 화려한 영상으로 관람객들을 맞았다. SUHD TV는 나노 크리스탈 기술을 적용해 화질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타이젠 OS 기반의 플랫폼으로 스마트 기능도 새로워졌다.

LG전자는 720㎡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올레드 TV', '슈퍼 울트라HD TV' 프리미엄 TV와 'G4', '어베인' 등 전략 스마트 기기를 공개했다. 또 전시관 입구에 '77형 울트라 올레드 TV' 5대를 나란히 연결한 '올레드 파노라마'를 구성해 눈길을 끌었다. /조한진기자 hjc@

SKT '밴드 데이터 요금제' 1주일 만에 50만명 돌파

61%가 저렴한 요금제 신청

SK텔레콤은 자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인 '밴드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 1주일 만에 가입자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만원대 요금부터 유·무선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둔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지난 20일 선보인 뒤 출시 첫날 15만명의 가입자를 모으는 등 초반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현재까지 가입자는 총 51만600명에 이른다.

밴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대부분이 기존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로 가입했다고 SK텔레콤 측은 밝혔다. 61%가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바꿨고, 28%는 실제 납부금액이 비슷한 요금제를 선택했다. 요금제를 상향한 고객은 11%에 그쳤다.

실질 납부금액이 유사한 요금제로 변경한 고객 중에서는 '전국민 무한 69'에서 'band 데이터 51'(월 5만1000원) 요금제로 변경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유선 통화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도 5GB에서 6.5GB로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 별로는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20대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밴드 데이터 61'(월 6만1000원)요금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유무선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으면서 최신 콘텐츠 이용 혜택까지 주어지는 '밴드 데이터 51' 요금제를 가장 많이 택했고, 상대적으로 음성통화량이 많은 50대 이상은 최저 요금제인 '밴드 데이터 29' 요금제에 주로 가입했다.

/정문경기자 hm0108@

4년 만에 새얼굴로 돌아왔다

뉴 아우디 A6



아우디의 간판 스타 아우디 A6(사진)가 새얼굴로 나타났다. 부분변경으로 옵션은 다양해졌고 출력은 높아진 '뉴 아우디 A6'다.

27일 아우디코리아에 따르면 국내에 새롭게 출시된 '뉴 아우디 A6'는 4종의 TDI 디젤 엔진과 3종의 TFSI 가솔린 엔진으로 구성돼 있다. 전 차종이 기존 모델보다 13~32마력 상당 엔진 성능이 향상됐으며 2개의 새로운 엔진도 추가됐다.

직렬 4기통 2.0 TDI 엔진의 '뉴 아우디 A6 35 TDI'는 기존보다 13마력 향상됐다. 최고 출력은 190마력이다. V6 3.0 TDI 엔진이 들어간 '뉴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는 최고 출력 272마력으로 기존 모델보다 27마력이 높아졌다.

고성능 모델인 '뉴 아우디 S6'는 V8 트윈터보차저를 장착한 4.0 TFSI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다. 이전 모델보다 30마력 더 올라간 450마력의 출력을 발휘해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4.5초 만에 도달한다.

외관 디자인은 더 낮고 넓어졌다. 크롬라인이 추가된 전면의 싱글프레임그릴은 다이내믹하다. 새롭게 디자인 된 전면 범퍼를 비롯해 토네이도 라인과 함께 더욱 강조된 사이드 라인, 일체형으로 새롭게 디자인 된 후면 범퍼와 트윈 테일 파이프 등은 더욱 경쾌한 느낌을 주면서도 특유의 우아한 분위기는 놓치지 않았다.

랩어라운드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내부 인테리어는 새롭게 디자인된 가죽 기어노브와 모든 모델에 기본 적용된 리얼 우드 인레이는 세단의 기품을 끌어올렸다.

모든 모델에 발광다이오드(LED) 헤드라이트, 턴 시그널 테일램프, 보이스 컨트롤 시스템, 차세대 내비게이션, 전동 트렁크, 방음 유리, 컴포트키 등이 기본 적용됐다. 지난 해 '아우디 A8'에 처음 선보였던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도 적용할 수 있어 다른 차량의 시야 방해 없이 운전자 시야를 더 밝고 넓게 확보할 수 있다. 고성능 모델인 '뉴 아우디 S6'에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됐다.

선택권은 더욱 넓어졌다. 7개 차종이 '컴포트·프리미엄·스포트'의 3가지 옵션으로 출시돼 차종의 수가 총 18가지로 확대됐다. 색상도 5가지에서 15가지로 늘었다.

앞서 출시한 'A3 스포트백'과 'S3 세단', 부분변경된 '뉴 아우디 Q3' 그리고 '뉴 아우디 A6'와 함께 출시된 '뉴 아우디 A7', '뉴 아우디 S7', '뉴 아우디 RS 7'까지 합하면 총 11종의 신차가 올해 국내 시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양소리기자

산업부-한전 '나 몰라라'… IGCC사업 표류

<석탄가스화복합화력 사업>

발전소가 설립 '켑코우데' 수십억 적자에도 대안 없어

에너지정책 우선순위 제외 찬밥신세 전락… 혈세 낭비 "육성 의지 있나" 비판 봇물



한국서부발전(사장 조인국)은 지난 4월 충남 태안화력 건설현장에서본격적인 시운전을 앞두고 있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서부발전 제공

정부의 압박속에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이 추진하는 글로벌 석탄가스화복합화력(IGCC)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IGCC 사업은 유연탄을 고온·고압 처리해 가압분류층 공정에서 뽑아낸 가스로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합성천연가스(SNG)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10대 육성사업이었지만 박근혜 정부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라인에서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면서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때문에 한전과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 등이 한국 IGCC 사업을 위해 설립한 켑코우데는 최근 2년간 22억원이 넘는 영업손실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산업부나 한전과 발전사들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있어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켑코우데는 지난해 9억4688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앞선 2013년의 영업적자 규모는 13억5370만원이다.

켑코우데는 석탄가스화 사업을 위해 독일 철강회사 티센크루프 그룹의 우데사와 합작 설립한 회사다. 지분 구조는 한전이 45%로 최대주주이며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가 각각 3%씩 지분을 갖고 있다.

켑코우데는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SNG 공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프로젝트 법인 설립 후 3개의 가스화기를 갖춘 SNG 생산설비 착공을 진행중이다. 연 110만톤의 SNG를 생산, 설비규모 150만kW IGCC 발전소에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가 한전의 석탄가스화 사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국내사업은 물론 해외사업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전의 석탄가스화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사업자인 한전과 발전사가 왜 신재생 가스사업까지 하느냐는 것이다.

켑코우데의 한 관계자는 "산업부에선 기본적으로 저렴한 천연액화가스(LNG), 셰일가스 공급에 주력하면서 SNG등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한전이 유상증자를 하려고 해도 정부의 허가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켑코우데를 만든 한전과 발전자회사도 석탄가스화 사업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켑코우데가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가 나는데도 지분을 갖고 있는 발전사들이 무책임하게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부발전과 켑코우데는 지난 2011년 하동군과 SNG 플랜트를 건설하는 '하동 SNG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지만 현재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서부발전은 올해 태안에서 IGCC 발전소를 시험 운영할 예정이지만 이 사업에 켑코우데는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 중복 등을 이유로 한때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켑코우데는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 등의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데도 태안IGCC 발전소 사업에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남동발전 한 관계자는 "켑코우데라는 회사가 있느냐. 우리가 출자한 회사가 맞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송정훈기자 sjh@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현대차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운행

현대자동차는 울산시와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27일 맺었다.

울산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갑한 현대차 사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치윤 한국수소산업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측은 이날 16인승 리무진 수소연료전지버스 1대를 울산시에 전달했다.



27일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기념해 김기현 울산시장(왼쪽), 윤갑한 현대차 사장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사측은 내년 4월까지 수소연료전지버스를 울산시에 무상 임대하고 시범운행을 통해 이 버스의 성능과 친환경성을 평가한다. 시범운행은 내달 4일부터 시작돼 울산시의 각종 행사 인원수송과 의전차량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버스는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 반응시켜 생성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되는 차세대 친환경 무공해 차량이다. 무공해 차량답게 배기가스 대신 물만 배출되며 최고 속도는 100km/h, 1회 충전 시 440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버스는 2세대 모델로 대용량 수소 연료탱크(1640리터)를 적용하는 등 일반버스 수준의 동력성능과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기아차, 신형 K5 실내 공개

기아자동차는 신형 K5에 새로 탑재된 신기술과 내장 이미지를 공개해 20~30대의 젊은 고객층 확보에 나선다. 27일 사측은 내달 중순부터 신형 K5의 사전계약을 받고 7월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형 K5에는 다양한 모바일 활동을 즐기는 젊은 세대를 위해 휴대폰 무선충전기가 적용됐다. 휴대폰 무선충전기는 별도의 연결잭 없이 센터페시아 하단 트레이에 올려



기아차가 공개한 신형 K5 내부.

놓기만 해도 휴대폰 충전이 되는 장치다. 또한 대형차 위주로 적용됐던 동승석 조절 장치가 적용돼 운전자가 시트 측면 스위치를 통해 동승석의 위치를 쉽게 앞뒤로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정용기기자

나는 구글·뛰는 볼보·굼뜬 벤츠

자율주행차 3色 행보
구글, 누적주행거리 280만km
벤츠 제치고 2017년 상용화
볼보 '드라이브 미'로 추격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의 자율주행자동차가 구글과는 기술 격차가 크고 경쟁업체의 자율주행차와도 차별화 되지 않고 있어 첨단IT기술에서는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자율주행차 사업규모, 누적 주행거리 등 실질적인 성과에 있어서 벤츠를 앞질러 2017년 상용화를 바라보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 볼보 등의 경쟁업체도 자율주행차 관련 대규모 사업을 벌이거나 정부와 공조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벤츠코리아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소개하는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워크샵'을 열고 S클래스 모델에 장착된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관람객들이 체험한 벤츠의 자율주행 기술들은 구글은 물론 현대자동차, 볼보 등 완성차 업체가 선보인 기술 수준 보다 떨어지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이날 행사에서 벤츠는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해 앞차와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디스트로닉 플러스 기능과 브레이크 어시스트, 프리-세이프 기술 등을 선보였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볼보는 2017년까지 자율주행 차량 100대를 일반도로에 주행시키겠다는 '드라이브 미'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 정부까지 합세해 볼보의 자율주행차 사업에 시너지를 불어넣었다. 기술 또한 다수의 센서와 카메라, 클라우드 시스템, 고성능 GPS 등을 기반으로 전방 150m에 있는 보행자, 차량, 건물 등을 식별한다. 목적지 도착 후에는 차량이 스스로 주차를 하는 기능도 적용됐다.

구글은 최근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차들이 지난 6년간 누적 주행거리 280만km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또한 도시정보수집 사업을 벌이는 기업을 인수해 향상된 구글 교통시스템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도심을 달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벤츠는 이날 행사에서 2013년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기능을 가진 S500 모델이 약 100km에 이르는 구간의 주행을 마쳤다는 홍보를 했다.

이어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카그룹 마케팅&세일즈 총괄은 "발전된 가솔린·디젤 내연기관을 계속 개발해 배출량을 줄일 것"이라며 "앞으로 수십 년은 우리 차량에 내연기관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해 탄소 무배출 기반 자율주행차 생산 의지와 상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구글은 오래전부터 자동차를 하나의 전자제품으로 구상하고 자율주행차 사업을 벌여왔기 때문에 현재, 완성차 업체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왔다"며 "자율주행차 시스템은 내연 기관보다 전기 에너지가 공급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의 자율주행차가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SKT는 '발랄'·KT는 '밋밋' 대조적

르포 '월드IT쇼' 전시관 둘러보니

SKT 'IoT 생활 플랫폼' vs KT '기가토피아'

SK텔레콤과 KT는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개막된 '월드IT쇼 2015' 현장에서도 각자의 비전을 알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

월드IT쇼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C홀로 들어서니 819㎡ 규모의 SK텔레콤 전시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SK텔레콤은 이 곳에서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를 주제로 5G 시대를 선도하는 네트워크 기술과 사물인터넷을 접목시킨 플랫폼, 신기술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이 이번 전시회에서 전면에 내세운 핵심 미래 기술은 '5G 동일채널 양방향 전송' 기술이다. 전시관 입구에서는 이 기술을 적용한 로봇 경찰이 수신호로 차량을 정리하는 상황을 시연하고 있었다. 로봇 경찰은 최대 7.5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는 5G 기술이 적용됐다.

일상 생활 체험 부스에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혁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집, 거리, 상점, 야외활동 등에서 ICT플랫폼이 가져올 편리한 미래 생활상을 보여줬다.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기기를 제어하는 '스마트홈', 와이파이로 연결해 고음질을 내는 'UO 오디오 링키지', CCTV 영상을 저장·분석하는 '비디오 클라우드' 솔루션도 선보인다. 초소형 프로젝터 'UO 스마트빔 레이저' 등 4가지 상품을 처음 공개했다.

SK텔레콤 부스를 지나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KT 전시관이 나왔다. 관람객들은 하나 같이 KT의 전시관이 너무 SK텔레콤 부스와 대조적이고 관람객이 보기에도 엉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름 쉽고 재미있게 5G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야구장 콘셉트로 부스를 단장한 것이 특징이지만 고객들은 별로 호응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의 5G 경찰 로봇 등 보다 흥미가 없다는 것이 관람객들의 반응이었다.



SK텔레콤 전시관에서 5G 경찰 로봇이 통제요원의 수신호를 따라 인사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KT 전시요원들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업체인 '이리언스'의 홍채인식 결제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 /KT제공

관람객 김모씨는 "바로 옆 SK텔레콤의 전시관에서 발랄하고 다채롭게 준비됐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과 달리 KT에서는 밋밋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획기적인 것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KT는 이곳에서 '모든 사물이 연결된 5G 세상, 기가토피아' 미래를 보여준다고 홍보했다. 내부는 '출입솔루션', '차세대 통신(5G)', '사물인터넷', '기가토피아' 등 총 4개의 존으로 구성됐다. 'WIS 2015'에서 KT가 선보일 기가토피아는 '출입 솔루션'존을 통해 부스에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KT야구단의 공식 어플리케이션인 'WIZZAP' 서비스와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의 근거리 무선통신(NFC)기술이 적용된 게이트를 체험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왼쪽)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26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전략적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두산그룹 제공

두산·수출입銀, 금융협력 MOU

두산그룹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과 이덕훈 수은 행장은 전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략사업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과 맞춤형 금융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두산과 수은은 해외 발전·담수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지원 사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두산 측은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전략적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은은 두산의 주력업인 발전·담수플랜트와 건설기계장비 사업 등 글로벌 핵심전략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포괄적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인도, 베트남 등 전략진출국가에서 민자발전사업 등 유망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지분참여, 금융자문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두산과 수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례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필요시 사업별 태스크포스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이어 지난달 수은의 지급보증을 통해 두산중공업이 창사 이래 최초로 발행한 5500억원 규모의 글로벌본드에 대한 클로징 세리머니도 함께 열었다.

/양소리기자 10sound@

넥슨 '마비노기 듀얼' 모바일 TCG 공략 본격화

내달 9일 서비스

넥슨(대표 박지원)이 오는 6월 9일 '마비노기듀얼'의 서비스를 시작한다.

넥슨이 인기 온라인게임 '마비노기'와 '마비노기 영웅전'을 활용한 카드게임 '마비노기듀얼'로 TCG(트레이딩 카드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넥슨은 27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브캣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정통 모바일 TCG '마비노기듀얼'을 공개했다.

'마비노기듀얼'은 다섯 종류의 자원과 열두 장의 카드로 구성된 덱을 활용해 '드로우(뽑기)' 없이 치밀한 전략 플레이를 겨루는 정통 트레이딩카드 게임이다. 탁월한 게임성과 높은 퀄리티의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올해 최고의 모바일 기대작으로 주목 받고 있다.



김동건 데브캣스튜디오 본부장(좌)-임세빈 사업 실장.

특히 '실시간 1대1 듀얼'과 '카드거래'가 가능한 '소울링크(Soul Link)' 시스템 등 정통 TCG의 깊이 있는 게임성과 대중적인 재미요소를 갖췄다. 무작위로 구성된 열두 장의 카드로 미션을 진행하는 '드래프트 미션'과 유저가 직접 구성한 덱으로 매일 도전이 가능한 '오늘의 미션' 등 풍부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김동건 데브캣스튜디오 본부장은 "마비노기듀얼은 정통TCG를 지향해 실제로 유저간 카드 교환이 가능하고 작은 덱(12장)을 가지고도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됐으며 간편하고 빠르게 플레이할 수 있는 인스턴스 플레이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비노기듀얼'의 글로벌 흥행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임세빈 데브캣스튜디오 사업실장은 "마비노기 듀얼은 넥슨의 글로벌 원빌드 모바일 게임 첫 타이틀"이라면서 "글로벌 테스트 반응도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를 즐긴 이용자가 마비노기 듀얼의 테스트 소식을 접하고 직접 게임을 경험한 사례를 보면 분위기는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비노기듀얼'은 넥슨의 글로벌 원빌드 전략에 따라 하반기 중 총 6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번체), 포루투갈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글로벌 마켓에도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사전 예약 이벤트가 시작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

대한항공, 몽골 사막에 '푸른 숲 가꾸기'

대한항공은 자사의 임직원들이 몽골 사막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몽골 바가노르구 사막화 지역에서 18일부터 29일까지 신입직원과 임직원 170여명, 현지 주민 등 600여명과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펼친다.

대한항공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사막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부터 몽골 지역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에는 포플러, 비술나무, 차차르간 등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44ha(44만m2) 규모의 사막은 약 9만여 그루의 나무가 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양소리기자



이병호 대한항공 인력관리본부장(왼쪽 네 번째),채종훈 대한항공 중국지역본부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몽골 바가노르구 주민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中企 시내면세점 윤곽… 부지별 장단점은?

유진·파라다이스, 주차 문제
하이브랜드, 접근성 떨어져

그랜드관광호텔·중원·패션協
유커 몰리는 동대문서 경쟁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일을 앞두고 대기업 만큼이나 중견·중소기업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7일 현재 유진기업·하나투어·하이브랜드·한국패션협회·중원면세점·파라다이스·그랜드힐튼 등 7개 업체가 서울 여의도·양재·강북 도심 등에 면세점 입지를 확정하고 내달 1일 마감되는 입찰에 도전장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2개 자리가 주어지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들에 배당된 시내면세점은 단 한곳이란 점에서 경쟁이 더 가열되고 있다.

유진기업(대표 최종성)은 서울 여의도 MBC사옥에 시내면세점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 MBC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존 방송 스튜디오 시설과 MBC의 문화콘텐츠를 면세사업과 결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7일 해당 사업을 전담할 별도 법인 유진디에프앤씨(대표 구자영)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유진디에프앤씨는 모회사인 유진기업이 100% 출자한다.

유진기업은 여의도가 서울 도심에 비해 교통 혼잡이 덜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오락시설과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또 대기업 시내면세점 입찰에 나선 한화갤러리아가 후보지로 선정한 63빌딩과도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다. 관세청이 대기업 면세점을 중소기업 면세점과 상권이 겹치게 선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돼 두 기업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하나투어는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인사동 본사를 사업 후보지로 결정했다.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다면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시내면세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경복궁·남대문·명동 등의 주요 관광시설을 도보로 모두 이동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사동뿐만 아니라 명동·남대문 인근은 이미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워커힐·제주·인천 등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그룹은 지주사인 파라다이스글로벌을 통해 6년 만에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 도전한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지분의 19.9%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 명동 SK건설빌딩 3~10층에 면세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명동 역시 주요 관광시설과 가깝다는 이점은 있으나 교통체증과 주차 시설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복합쇼핑몰 하이브랜드는 유치 후보지로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을 선정했다. 지상 6층 규모의 쇼핑몰 가운데 2개 층은 쇼핑몰로, 1개 층은 식음료매장, 나머지 3개 층을 면세점으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양재동은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양재IC에서 우회전 한 지점에 있어 다른 면세점 부지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지하철의 경우 2호선 삼성역 코엑스나 잠실역 롯데월드로 이동하기 위해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차로 이동해야해 결국 버스나 자동차 이용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진 동대문을 두고는 세 곳의 중견기업이 경쟁한다.

대구시내 면세점 운영사업자인 그랜드관광호텔은 27일 면세점 사업 진출을 위해 그랜드동대문디에프(DF:Duty Free)를 설립하고, 동대문 패션타운 중심부에 있는 헬로APM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건물의 5층·6층·7층 3개 층은 판매장으로, 9층은 보세창고와 사무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패션협회는 지난 26일 위비스·EXR코리아·MK트렌드 등 9개 회원사가 연합해 동대문듀티프리(DDF)를 설립하고 면세점 입찰에 나선다. 후보지는 동대문 롯데피트인이다.

충북 청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원면세점은 롯데그룹과 함께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다. 후보지는 패션협회와 같은 건물이다. 지하3층~지상8층 가운데 롯데가 5개층, 중원면세점이 2개층, 공용시설(식당가·사무실 등)로 4개층을 사용하기로 했다.

세 곳의 중견 기업 외에도 워커힐을 운영 중인 SK네트웍스도 동대문에 있는 케레스타(구 거평프레야)를 면세점 후보지로 선정했을 정도로 동대문 지역내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대기업 입찰에서 두 곳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경쟁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다음달 1일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접수를 마감하고 6~7월 중 세관의 검토와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규사업자를 선정한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옷 파는 대형마트 'SPA' 매장 확대

신선·가공식품과 생활용품 판매의 대명사였던 대형마트가 최근 SPA(제조유통일괄브랜드)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29일 가좌점, 남양주진접점에 유니클로, 탑(TOP)10 등을 동시 오픈하며 자사 점포 내 SPA 매장이 40개를 돌파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 내 유니클로 매장은 20개, 탑10 매장은 11개로 확대됐다. 기존 에잇세컨즈· 베이직하우스·스파오·미쏘·슈스파·마더케어·코즈니밸류 등 브랜드도 추가 매장을 오픈해 7월 내 전체 SPA 매장은 50개를 돌파할 전망이다.

29일 오픈하는 유니클로의 매장 규모는 300평, 탑10은 130평 수준이다. 대형마트 입점 패션매장 규모가 평균 15~20평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소 6.5배에서 최대 20배 가까운 공간을 할애한 셈이다.

대형마트가 SPA 브랜드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우선 높은 집객효과 때문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유니클로 입점 점포의 경우 몰 임대매장 전체 평균 매출이 유니클로 입점 이전 대비 최대 66.8% 급증했다. 직영 매장에도 방문객이 유입돼 평균 5% 가량의 추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인 대형마트로는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온라인쇼핑의 성장세에 영업 규제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쇼핑공간을 넘어선 다양한 SPA 도입으로 상대적 약세로 꼽히던 패션부문을 강화해 신규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홈플러스몰 사업부문 이성룡 부사장은 "합리적인 가격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을 발 빠르게 선보이는 SPA 브랜드는 최근 대형마트 변화의 주요 축을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영유아 SPA '마더케어'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카테고리의 SPA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꼬깔콘' 1분기 매출 100억… 32년만에 스낵 1위

허니버터맛 인기에 연말 매출 1000억원 돌파할 듯

옥수수 스낵의 대명사인 '꼬깔콘'이 출시 32년만에 처음으로 스낵시장 1위에 올랐다.

롯데제과(대표 김용수)는 닐슨코리아가 최근 발표한 포스데이터를 인용, 꼬깔콘이 지난 4월 스낵 시장에서 유일하게 100억원(102억5000만원) 이상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스낵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꼬깔콘의 올들어 1~4월 매출은 전년 동기간 보다 50% 이상 늘어난 350억원이다. 이를 개수로 환산하면 약 4500만 봉지다. 스테디셀러로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려 왔으며 지난해에는 730억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4월 매출 100억원 돌파가 가능했던 것은 2월에 선보인 꼬깔콘 허니버터맛이 인기몰이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꼬깔콘 허니버터맛은 지난달에만 약 50억원 어치가 팔려 나갔다. 이 제품은 출시 이후 매달 50% 이상씩 신장할 만큼 10대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20대가 주 소비층인 꼬깔콘 매콤달콤맛도 4월 매출이 전년보다 15% 이상 늘어난 20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견인에 한몫했다.

꼬깔 대 나팔 캠페인, '응답하라 1994' PPL 전략 등 독창적인 IMC(통합마케팅) 전략도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쇄신하며 매출 신장에 동력이 됐다.

롯데제과 측은 하반기들어 꼬깔콘의 상승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낵 시장의 성수기인 여름을 맞아 월 매출 2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 스낵 시장에 유일하게 1000억원을 돌파하며 자일리톨껌, 빼빼로에 이어 매가브랜드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롯데 측은 기대했다.



꼬깔콘은 1980년대초 롯데제과가 제과회사 중에 막내로 스낵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작품으로 선보인 기념비적인 제품이다. 1982년 미국 제너럴 밀즈사로부터 첨단 설비를 도입하고 1983년 9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했다.

출시 때부터 고깔 모자처럼 생긴 모양과 꼬깔이라는 우리말로 빠르게 친숙해졌으며 이후 소맥·감자·옥수수로 3등분된 시장에서 옥수수 스낵 시장 1위의 자리를 지켜 왔다. 초창기 고소한맛, 군옥수수맛에서 최근엔 매콤달콤맛, 허니버터맛까지 네 가지 맛이 출시돼 어린 아이부터 장년층까지 폭넓은 소비층을 확보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재도약 꿈꾸는 휠라, 정구호 부사장 영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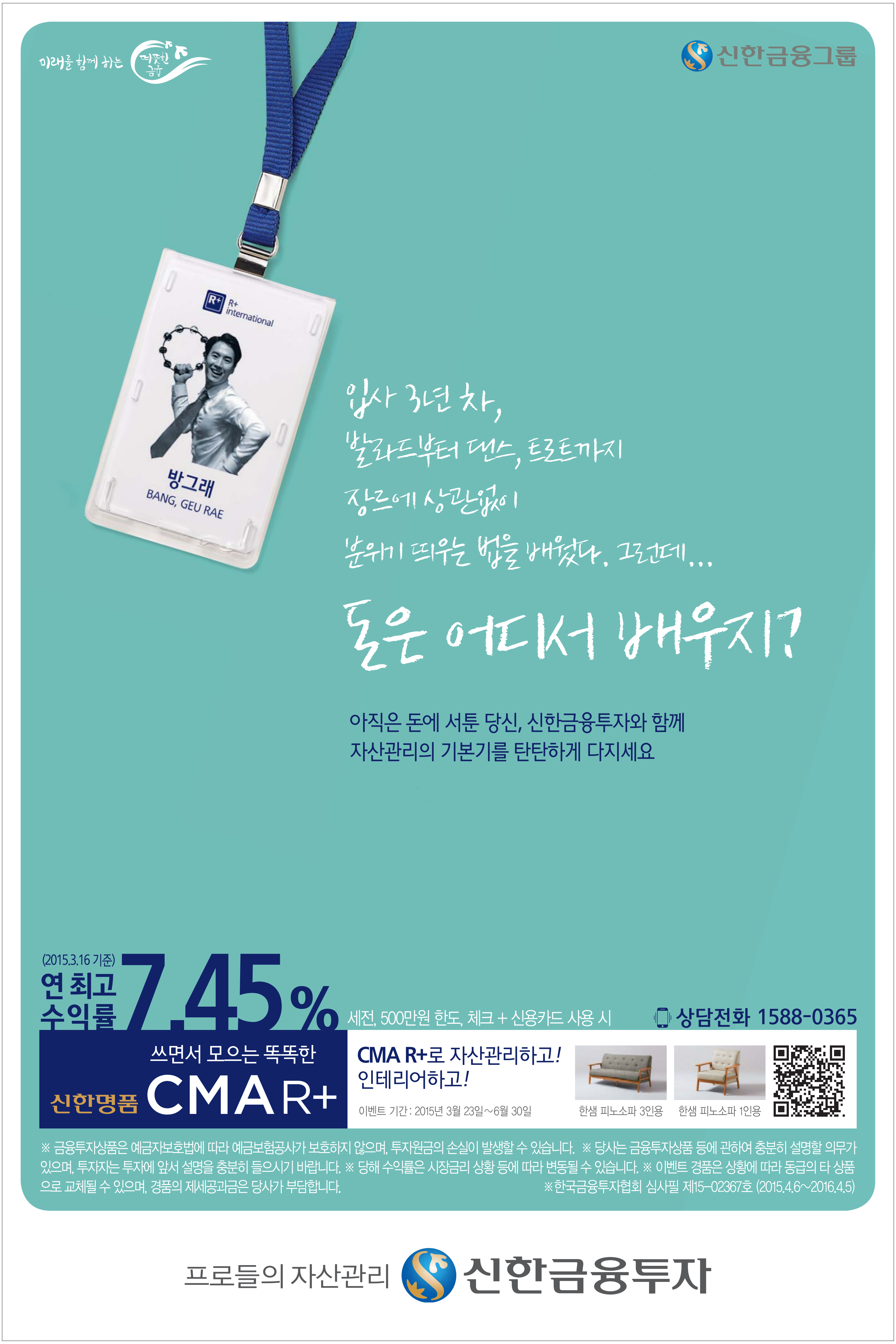
휠라코리아(대표 윤윤수)가 잇따라 외부인사를 영입하며 재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27일 휠라코리아는 6월1일부로 CD(크리에이티브 디렉터)·부사장으로 제일모직 출신의 정구호(53·사진)씨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휠라가 국내 사업부문에 CD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동안 조직이 정체됐다는 내·외부의 평가가 있었던 만큼 분위기쇄신에나선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없었던 CD 체제를 만들고 그 자리에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R+ international
방그래
BANG, GEU RAE
입사 3년 차,
발라드부터 댄스, 트로트까지
장르에 상관없이
분위기 띄우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배우지?
아직은 돈에 서툰 당신,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자산관리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세요
(2015.3.16 기준)
연 최고 수익률 7.45%
세전, 500만원 한도, 체크 + 신용카드 사용 시
상담전화 1588-0365
쓰면서 모으는 똑똑한
신한명품 CMA R+
CMA R+로 자산관리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벤트 기간 : 2015년 3월 23일~6월 30일
한샘 피노소파 3인용
한샘 피노소파 1인용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경품은 상황에 따라 동급의 타 상품으로 교체될 수 있으며, 경품의 제세공과금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367호 (2015.4.6~2016.4.5)
프로들의 자산관리 신한금융투자





강남대로에 5만4000본 꽃 수 놓는다

aT·농식품부, 화훼농가와 상생 '힐링 꽃길' 조성

영동1교～영곡사거리 대표적 상습정체 구간 계절 대표 꽃들로 채워

도로 이용 2500만명에 심리적 치유 효과 기대

서울 강남대로에 야생화가 어우러진 '힐링 꽃길'이 탄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강남대로(영동1교↔염곡4거리) 약1.7㎞ 구간에 서초구청과 협력해 야생화가 어우러진 강남대로 꽃길을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힐링 꽃길을 알리는 홍보조형물 3점, 토피어리를 활용한 추억의 기차역,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 존 1개소, 5만4000본의 계절 꽃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포인트 화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공간 연출을 구현했다. 식재 초종은 각 계절을 대표하는 꽃들로 구성되는데 5월에는 금어초, 6월에는 백합, 7월에는 아스틸베, 8월에는 칸나, 9월에는 글라디올러스, 10월에는 국화를 대표 수종으로 선정했다.

화훼 농가와 협력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꽃을 늘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꽃길을 만들어 함께 거닐고 즐기며 나아가 가정에서도 꽃과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우리나라 고유의 야생화를 보존하고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aT에 따르면 국내 화훼산업은 2005년 1조원 생산에서 2013년 7400억원 수준으로 최근 화훼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개방화에 따른 수입꽃 증가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소비중 약 85%를 점유하는 경조사 위주의 꽃 수요 감소가 예상돼 국내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aT는 꽃길 조성사업을 통해 힐링과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강남대로 영동1교~염곡4거리는 대표적인 상습정체 구간이다. 하지만 이번 꽃길 조성을 통해 6개월간 승용차와 버스 이용객 약 2500만명에 심리적 치유 효과를 줄 수 있다고 aT측은 설명했다.

aT 관계자는 "서울의 대표적 녹색 친환경 자치구로써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꽃 생활화'를 통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각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변 도로를 꽃 길로 조성한다면 화훼재배 농가와 더불어 상생하는 한편 지역민에게도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T 화훼공판장이 보유한 유통망과 꽃 길 조성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제공해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힐링 꽃길 준공식에는 서초구 강석훈 국회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농식품부 관계자, 김재수 aT 사장, 화훼단체 대표, 서초구민 등이 다수 참석했다.

식전공연, 축사, 어린이와 함께 하는 꽃 심기 체험행사, 수지식 모의경매 체험, 야외 꽃꽂이 컨테스트, 장미 한송이 포옹하기와 기능성 화훼관련 상품 시음·시식 행사 등이 마련돼 참석자들이 직접 체험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aT센터, 농식품산업의 전진기지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지자체 위해 복합공간 개발 'ABC 계획안' 발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사진)가 농식품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최근 aT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ABC(Agricuture Business Center)계획안을 발표, 복합공간으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농업관련 중앙정부는 세종시로, 산하기관들은 나주로 이전해 수도권 농업기관 공동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에 따른 수출농업 기반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aT측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업기관 수도권 거점 △원스톱 수출지원서비스 △컨벤션·홍보기능 확대 등을 내세워 aT센터를 수도권 농업창구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다.

aT센터 1층에는 농식품 융복합 공간 비즈존(Biz Zone)이 선보인다. 창업캠퍼스, 차이나카페 등 운영 농식품 해외진출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층은 스마트오피스 기능이 확충된다. 사무 공간과 참여 기관별 홍보코너 설치 등 통합사무소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농업기관(농촌진흥청·산림청·농촌경제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지방자치단체 대상 사무공간으로 제공된다.

4층은전시·회의기능 활성화를 위해 159평에서 280평으로 공간을 대폭 확충했다. 이를 통해 외식, 귀농귀촌, 화훼, 6차산업 등의 유치를 강화하고 aT센터를 활용하는 국제회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지하 1층은 aT 북카페와 편의 매장으로 활성화된다. 하반기 공개입찰 추진, 프리미엄 매장 유치 등이 추진된다. .

aT는 이밖에 농업전시장 화훼공판장 등 농업시설 활용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K-서울호텔, 신분당선, 서초구 등과 연계 aT 기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aT센터 지하 통로에는 한국 농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농업역사관을 설치했다.

aT 관계자는 "이번 ABC추진계획을 통해 aT센터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며 "지방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위한 농식품 비즈니스 공간 마련으로 aT센터가 농식품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에스티팜의 원료의약품 생산 시설인 반월공장 준공식에서 이동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부사장(왼쪽부터), 강정석 사장, 해외파트너사 관계자, 김원배 동아에스티 부회장,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김인규 경인식약청장, 해외파트너사 관계자, 박찬일 동아에스티 사장, 임근조 에스티팜 사장이 반월공장 준공 기념 떡 커팅을 하고 있다.

에스티팜, 원료의약품 공장 준공

안산에 10만2000ℓ 생산 규모 국내외 생산관리 기준 충족 비전 달성·매출 확대 교두보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강정석)의 계열회사인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임근조)은 27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에서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인 반월공장의 준공식을 열었다.

반월공장은 에스티팜이 회사의 비전인 '세계적 수준의 원료의약품으로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을 달성하고, 향후 5년 내 두 배 이상의 매출액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건설됐다.

지난 2014년 2월에 착공해 대지면적 8800㎡(약 2700평), 연면적 7,400㎡(약 22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약 10만2000ℓ의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국내(KGMP)와 글로벌수준(cGMP, EUGMP)의 우수의약품 생산관리 기준뿐만 아니라 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PIC/S) 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생산된 제품의 해외 진출이 용이하다.

이 밖에도 4개의 생산 구획으로 나뉘어 한 개 공장에서 각기 다른 4개의 제품생산이 가능하다. 최신의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안정된 원료의약품의 생산 공정과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

반월공장은 현재 국내 GMP 허가를 위한 공정 밸리데이션(Process Validation)을 하고 있다. 국내 허가 완료 후 이르면 9월부터 간염치료제, 에이즈치료제, 결핵치료제 등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회장은 준공식에서 "기업이 성과를 내려면 우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생산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며 "세계적 수준의 생산공장을 짓게 된 만큼 이번 신축 공장을 발판 삼아 원료의약품 개발사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티팜은 원료의약품 전문 제조 회사로 시화 공단에 개별 생산공장 6개 동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FDA를 비롯해 국내외 기관의 우수의약품 생산관리 기준을 통과한 설비를 갖추고 간염치료제와 에이즈치료제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965억원의 매출액 중 미국과 유럽 등에 67%인 651억 원을 수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신호 회장, 강정석 사장, 동아에스티 김원배 부회장, 박찬일 사장, 동아제약 신동욱 사장, 에스티팜 임근조 사장 등 동아쏘시오그룹사 대표 및 임직원 외에 경인식약청 김인규 청장, 에스티팜 해외 파트너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공장 준공 경과보고, 회사 홍보영상 상영, 기념사, 기념떡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양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민과 아동학대 예방 머리 맞댄다

김수영 구청장 등 50명 참석 대안모색 주민 토론회 성료

이대목동병원이 수탁 운영하는 양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 최희연)는 지난 21일 구청 3층 양천홀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방형 토론회'를 열었다.

27일 이대목동병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과 대안을 함께 찾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순남 이화의료원장과학부모, 교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50여명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들은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며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우리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기'라는 주제 하에 의견을 공유하고 안건별로 분임토의를 거쳐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행동계획을 만들기도 했다.

이날 이순남 의료원장은 "학부모, 교사, 주민들과 함께 대학병원, 공공기관 등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동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열리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내 구성원들이 각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통찰을 함께 나누고 새롭게 시작한 아이터치상담센터가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상담센터인 아이터치 상담센터를 지난 1월부터 운영중이다.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최치선기자



양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난 21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방형 토론회를 열었다.

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재예방 맞손

10명 미만 소규모 제조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위험평가 지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지난 26일,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과 '도시형 소공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지난 26일, 대전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과 '도시형 소공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형 소상공인 사업장은 가죽, 액세서리 등을 제조·가공하는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이다. 이들 사업장은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업종 특성에 따라 열, 냄새, 분진과 기계설비의 위험 등 작업환경이 취약하다.

이에따라 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업무협약을 맺고 작업장 환경개선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동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재 전국 23개 지역에 소공인 업체를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활용해 1만여개의 도시형 소상공인 사업장에 작업환경개선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원에 나서게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안전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활동인 '위험성평가'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개선 비용지원과 위험성평가 컨설팅의 홍보 활동에 나서고 안전보건 교육안내 등에 노력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소공인 사업장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이 미흡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공인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현명기자 hmbok@

강강술래-길벗 '스마트폰 끄기' 캠페인

"하루 30분 책 읽으세요"

매월 추천도서 증정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서적 구입비도 매년 줄고 있는게 우리 현실이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 장려 캠페인을 진행해 주목받고 있다.

강강술래는 국민 독서율 증진을 위해 도서출판 길벗과 함께 이달의 도서를 선정, 매월 말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하루 30분 스마트폰 꺼두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의 도서는 내 집을 감각있게 꾸미고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싱글룸 인테리어의 모든 것'과 살 빼기 어려운 부위인 허벅지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하루에 한동작 허벅지'이다.

한편 강강술래는 이달 31일까지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캠핑세트(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750g+술래양념520g)'는 6만원(36%↓), 100% 한우갈비살만을 사용한 칠칠한우떡갈비세트(360g×3박스)는 3만3000원(50%↓)에 판매한다.

또 홍삼·인삼을 넣은 갈비탕박스(500㎖/10팩)는 3만5700원, 온 가족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30봉)는 9만원에 각각 5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김보라기자 bora6693@

'한전부지 세금 갈등' 서울시·강남구 법정가나

취득세·재산세 稅收 2700여억원 서울시로 강남구는 70억에 불과

지난해 현대차그룹에 낙찰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세금'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한전부지 개발이익금 활용을 두고 법적 공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전 부지 인수대상자로 결정된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에 부과될 세금은 크게 취득세와 재산세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신규 부동산 취득에 따라 취득세 4%(지방세)와 지방교육세 0.4%(지방세), 농어촌특별세 0.2%(국세)를 내야 한다.

현대차가 낙찰받은 10조5500억원 중 40%를 기부채납하면 취득세는 2532억원가량이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2785억여원의 세금을 모두 시가 받게 된다.

이 밖에도 건물을 지을 때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교통혼잡도에 따라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 훼손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가량도 시 금고에 들어간다.

시는 이 세금으로 한전 부지가 포함된 코엑스~한전~서울의료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72만㎡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강남구와 합의를 거쳐해 내년에 도시계획 인허가를 변경해 차질이 없으면 늦어도 2023년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완공할 계획이다.

또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강남구는 '울상'이다.

강남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은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 등이다. 하지만 이 세금은 70억원에 그친다. 지난해에도 한전 부지 공시지가인 1조4837억원으로 재산세 43억원만 받았다.

재산세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50%씩을 모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자치구부터 나눠 주기 때문에 구의 세입은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강남구는 최근 자치구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의 주요 세원인 재산세는 그대로인 반면 서울시세인 부동산 취득세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구의 부동산 취득세는 세곡동 대단지 신축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7.5% 증가한 463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기간 재산세는 2054억원으로 4% 상승하는데 그쳤다.

강남구는 또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를 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주민 68만명의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현대차그룹이 10조5500억원에 낙찰을 받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현대차그룹이 내야 하는 세금 3000억원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뉴시스

이어 지난 19일에는 신연희 구청장이 직접 서울시를 허위사실 유포와 권한남용으로 즉시 형사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신 구청장에 따르면 주민 의견서를 서울시가 누락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는 주민의견 5000건만 접수된 것으로 허위 보고 했다는 것.

강남구 관계자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비율이 5%에서 11%로 상향 조정돼 앞으로도 더 많은 세입이 예상된다"면서 "서울시 자치구들과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교환 등 자치구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합병 삼성물산, 주택사업 '갈림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건설사업이 날개를 달게 된 가운데 '래미안'으로 대표되던 주택사업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최근 1~2년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는 물론, 택지 확보 경쟁에서도 한 발 빗겨난 모습을 보이며 주택사업의 비중을 줄여가던 차였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키로 결정함에 따라 건설부문의 외형 확대 가속화가 예상된다.

합병 삼성물산은 리조트, 패션, 건설, 상사 등 4개 부문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건설부문이 양사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물산은 건설과 토목에, 제일모직은 조경과 빌딩관리에 강하다. 빌딩 사업을 제외하곤 사업이 겹치지 않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삼성물산이 건설, 특히 주택사업의 비중을 계속 줄여왔던 터라 합병 후 '래미안'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줄었다. 주택사업의 매출액이 6617억원에서 4260억원으로 35.6%나 감소한 게 컸다. 매출에서 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0% 수준에서 올해는 14%로 낮아졌다.

주택사업 관련 수치는 앞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 아파트를 지을 신규택지를 확보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2013년 10월 과천주공 7-2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따낸 이후로 신규 수주에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의도적인 사업 축소는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주택사업을 접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왔다. 심지어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을 없앨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합병 소식과 함께 주택사업의 확대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아진 상태다. 제일모직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경사업과 에너지절감 기술이 주택 상품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매년 1만여 가구 정도의 분양물량을 유지하고 있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수주에 나설 계획"이라며 "합병 후 제일모직의 브랜드 마케팅 관리 역량으로 래미안 인지도 상승은 물론, 상품성 향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 자체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뤄진 만큼, 주택사업이 지배구조 개편에 걸림돌이 된다면 없앨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너지 효과로만 본다면 주택사업은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한국감정원, 독거노인 거주 주택 개·보수 한국감정원은 27일 경북 칠곡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찾아 'KAB 사랑나눔의 집' 주택 개·보수 사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우측)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도배를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제공

GS건설, 내달 '자이' 아파트 4958가구 공급

올해 3만 가구 분양을 계획한 GS건설이 6월에만 약 5000가구를 쏟아낸다.

GS건설은 내달 전국적으로 6개 단지, 4958가구(일반분양 3745가구)를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서울 성동구 하왕1-5구역을 재개발한 '왕십리 자이'가 다음달 12일 견본주택 개관에 나선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51~84㎡, 전체 713가구 중 28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근 왕십리뉴타운과 함께 성동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기도 부천시 옥길보금자리지구에 지어지는 '옥길 자이'도 12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아파트 566가구와 오피스텔 144실 등 총 710가구다. 아파트는 84~122㎡, 오피스텔은 78~79㎡로 구성됐다. 옥길지구 첫 1군 브랜드 아파트로 남향 위주 4-bay 설계가 적용된다.

부천시 상동 일원에서는 '상동 스카이뷰 자이'가 공급된다. 405가구 모두가 84㎡로 설계됐다. 국철 1호선 송내역이 도보 5분 거리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6구역을 재개발한 '해운대 자이 2차'는 17일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59~84㎡, 전체 813가구 중 489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부산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초역세권 입지다. 센텀시티의 각종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동삭2지구에는 '자이 더 익스프레스 1차분'을 분양한다. 총 5개 블록으로 이뤄진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이 중 1849가구가 1차로 공급된다. 59~111㎡로 이뤄졌다. 남향 위주의 판상형 중심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 초교 2곳과 중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서는 5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반월 자이에뜨'를 선보인다. 총 468가구, 59~84㎡로 구성됐다. GS건설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공임대 아파트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한 직주근접 단지다. /박선옥기자

metro entertainment E

“욕 먹을지라도 항상 새롭고 싶어요”

‘앵그리맘’ 연기 호평 김희선

배우 김희선(38)이 결혼 후에도 이민호·지현우·지수 등 대세 총각 배우들과 연기하는 비결을 공개했다.

“세 명 다 바보 같이 착해요. 이민호와는 SBS 드라마 ‘신의’를 통해 6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참 수다쟁이죠. 지현우는 애늙은이고, 지수는 아들 같아요. 셋 다 덩치가 크니까 나이 있는 파트너가 옆에 있어도 여자 같고 여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여배우로서 나이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작품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운이 좋은 거죠.”

김희선은 지난해 KBS2 드라마 ‘참 좋은 시절’에 이어 올해 MBC 드라마 ‘앵그리맘’을 통해 호평을 받았다. 90년대 문화계 아이콘이지만 연기 비판을 받아온 그는 2007년 결혼을 기점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김희선은 “나는 20년 째 ‘재발견’이란 평가를 받는다”고 억울해했다.

“결혼 후 해왔던 역할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자체가 호기심이 많고 지루한 걸 싫어해요. 처음 시도하는 거라 욕을 먹을지라도 항상 새롭고 싶죠. 댓글을 안 보는 편이에요. 악플이 있다고 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연기했다가는 다중 인격이 될거예요. 소신있게 연기하려고 합니다.”

> 대세 총각 배우들과 잇따라 호흡
> 나이 있는데 기회 있어 감사할 뿐
>
> 액션·욕 연기, 스트레스도 풀려
> 교복설정 시청자 납득 위해 노력
>
> 차기작은 명분있는 악역 욕심 나”



‘앵그리맘’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딸을 구하기 위해 학생 신분으로 변신한 열혈 엄마 조강자로 분했다. 과거 일진이었던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 데뷔 후 처음 액션 연기를 했다.

“왜 남자 배우들이 액션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지 알았어요. 저는 살짝 건드렸는데 상대방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효과음까지 더해지니까 쾌감이 느껴져요. (웃음) 기회가 된다면 액션을 또 하고 싶습니다. 욕도 항상 듣는 입장이었죠. 욕 연습을 많이 했어요. 감독이 여러가지 경우를 이야기해줬고요. 실제 욕을 해서 ‘삐’ 처리를 할지, ‘수박 씨 발라 먹을 래’처럼 유머있게 욕을 대신할지 조율했죠. 욕 연기를 하다보니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앵그리맘’ 출연 제안을 받고 한 달 이상 고민을 했다. 이유는 교복을 입는 설정 때문이다.

“사람들은 김희선이 엄마 역할을 한다고 하면 ‘무슨 엄마? 연예인들은 애 키워주는 분들이 따로 있지 않느냐’고 반응해요. 근데 엄마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저는 모성애 연기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복을 입고 액션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같이 출연하는 아이들과 어울려야하잖아요. 또 조강자가 남자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시청자가 납득을 해야하니까 그 부분이 어려웠죠. 엄마가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위장한다는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학교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잖아요. 설정을 납득시키려면 엄마가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던 명분을 제대로 살리기로 했죠.”

김희선은 차기 작으로 명분있는 악역을 이야기했다.

“‘앵그리맘’은 멜로가 없는 제 첫 드라마기도해요. 사랑이야기가 없는데 전개가 쫄깃했고 연기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기뻐요. 저를 몰랐던 어린 친구들이 제 예전 작품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좋죠.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맡았는데 악역은 해본 적이 없어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악역이 있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전주리)

star bag

6월 신곡 제목 ‘뱅뱅뱅’



그룹 **빅뱅**이 6월1일 발표 예정인 ‘A’ 앨범의 첫 번째 신곡 제목 ‘BANG BANG BANG’을 공개했다. 신곡은 여름 날씨와 어울리는 화려한 스타일의 노래다. 27일 오후 2시부터 오는 31일까지 ‘A’ 앨범 예약판매가 진행되며 발매 일부터는 YG E-SHOP을 비롯한 전국 온·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영화 ‘계춘할망’ 김고은 친구



배우 **박민지**가 영화 ‘계춘할망’에 출연한다. 사고뭉치 여고생 민희 역을 맡았다. 김고은의 친구이자 천방지축 캐릭터로 톡톡 튀는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계춘할망’은 어릴 적 사고로 실종된 손녀가 10년 만에 다시 할머니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음악 영화 ‘황제’ 출연



배우 **홍이주**가 민병훈 감독 신작 ‘황제’(가제)에 캐스팅됐다. ‘황제’는 음악 영화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꼽히는 김선욱이 참여했다. 오는 6월 초 크랭크인해 이탈리아 등 유럽 6개국에서 로케이션으로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이주는 최근 영화 ‘연애의 맛’으로 관객과 만났다. 현재 다양성 영화 ‘소시민’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류 엔터테이너상 수상



개그맨 **지석진**이 아시아문화페스티벌 메인 행사 ‘2015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에서 한류엔터테이너상을 받는다. SBS 예능 ‘런닝맨’으로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 선정됐다.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는 글로벌 한류스타·대중문화예술분야 공로자를 선정하는 국제 행사다. 오는 27일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DDP) 알림2관에서 개최.

실화 영화 봇물… 관객 사로잡을까

'연평해전' '극비수사' '소수의견' 등 내달 연이어 개봉

때로는 한편의 실화가 영화보다 더 큰 감동을 선사한다. 다가오는 6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영화가 연이어 개봉해 주목된다.

다음달 11일 개봉하는 '연평해전'(감독 김학순)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부근 NL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로 벌어진 제2연평해전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김무열의 군제대 이후 복귀작이다. 진구와 이현우도 함께 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만큼 영화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초 2013년 10월 개봉을 목표로 했던 영화는 중간에 캐스팅이 바뀌고 투자와 배급 문제 등이 뒤얽히면서 몇 차례 위기를 맞이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비를 충원한 끝에 영화로 탄생할 수 있었다.

김학순 감독은 "이 전투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과 유가족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이 영화를 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대한 애정과 사랑, 관심을 우리가 다 같이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작품의 의미를 설명했다.

곽경택 감독의 신작 '극비수사'는 내달 18일 개봉한다. 1978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으로 사주로 유괴된 아이를 찾은 형사와 도사의 33일 동안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곽경택 감독이 실화를 영화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작 '친구'를 비롯해 '챔피언' '똥개' '미운오리새끼' 등이 실화를 모티브로 삼았다. 곽경택 감독은 "실화를 영화로 만드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 영화적으로 각색하고 클라이맥스를 만드는 과정은 힘들다"면서도 "그렇지만 실제 이야기가 가지는 묵직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화 소재를 다루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25일 개봉하는 '소수의견'은 제작된 지 2년 만에 극장에 걸리게 됐다. 제작 당시 용산 철거민 참사를 다룬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다.

영화는 강제철거 현장에서 벌어진 16세 철거민 소년과 20세 의경의 죽음을 둘러싸고 소년의 아버지가 경찰을 죽인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벌어지는 법정 공방을 그렸다. 윤계상이 국선 변호인 윤진원 역을 맡았으며 김옥빈이 열혈 사회부 기자 공수경으로 함께 했다. 이들 외에도 유해진, 이경영, 김의성, 권해효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연평해전


극비수사


소수의견



서인영 가수 활동 재개 내달 3일 새 앨범 발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인 서인영(사진)이 본업인 가수로 돌아온다.

서인영은 다음달 9일 새 앨범을 발표하고 가수로 본격 활동한다고 소속사 플레이톤이 27일 밝혔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싱글 '생각나' 이후 약 7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곡이다. 모든 곡 작업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친 상태다.

한편 서인영은 현재 SBS '썸남썸녀', '패션왕-비밀의 상자'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



"30대 절반, 반성·자숙으로 보냈다"

크라운제이, 대마초 파문 이후 5년 만에 컴백

5년 만에 컴백 소식을 알린 래퍼 크라운제이(CROWN J·사진)가 자숙 기간의 심경을 고백했다.

크라운제이는 "5~6년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 있지만 30대 초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했고, 30대 절반 이상을 반성과 자숙의 시간으로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2009년 MBC '우리 결혼했어요'를 마지막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을 끝낸 그는 미국 힙합의 메카인 애틀란타로 건너가 플라이보이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이후 약 2년 동안 믹스 테이프를 발표하고 미국 10개 주 투어를 하며 자리를 잡았다. 이어 미국 남부힙합(Dirty South)의 명가 애틀랜틱 레코드 산하에 있는 T.I.의 레이블 그랜드 허슬(Grand Hustle)과 인연을 맺었다. 그랜드 허슬 소속 래퍼 중 한 명인 영 드로(Young Dro)와 2010년 4월 싱글 '아임 굿(Im Good)'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숙하며 음악 작업에 매진한 그는 다음달 3일 발표 예정인 EP 앨범 'L.O.L.O'를 통해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이번 앨범의 첫 번째 타이틀곡 'LOLO(Life Of Luxury Only)'는 크라운제이와 10년 지기인 잇츠타임(ITS TIME)이 공동 프로듀싱했다. 두 번째 싱글곡 'BRB(BE RIGHT BACK)'는 가수 겸 프로듀서인 태완(TAEWAN aka C-LUV)이 크라운제이와 공동 작업하고 피처링에도 참여했다. /김지민기자

내달 발레 향연 펼쳐진다

제5회 대한민국발레축제 개최
오페라극장·CJ 토월극장 등서 야외 무료 갈라공연도 풍성

모던 발레에서 클래식 발레까지 대한민국 대표 발레단이 6월을 뜨겁게 달군다.

예술의전당과 대한민국발레축제조직위원회는 내달 4~28일 오페라극장, CJ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등에서 '2015 제5회 대한민국발레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국내 발레의 저변 확대와 민간 발레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야외공연장에서 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의 무료 갈라공연이 펼쳐져 더욱 풍성한 축제가 기대된다.

CJ 토월극장에서는 중견안무가들의 작품이 공연된다. 개막작은 김용걸댄스씨어터의 'Inside of Life'로 '삶'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를 몸짓으로 풀어낸다. 이어 국립발레단 발레마스터인 박상철의 'Shakespeare in Ballet 오델로'와 단국대학교 교수인 최소빈의 '레가토', 와이즈발레단의 'Once upon a time in 발레', 유럽페스티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SEO(서)발레단의 '아따블르: A table'이 무대에 오른다.

또 강원도를 대표하는 백영태발레류보브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모티브로 인간의 선과 악을 표현한 '데미안'을, 김선수발레씨어터는 우리의 고전 '춘향'을 선보인다.

자유소극장에서는 젊은 신진안무가들이 총출동한다. 비겁한 세상에 대한 두 남자의 처절한 몸부림을 유쾌하게 그린 유회웅리버티홀의 '비겁해서 반가운 세상',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내면을 발레로 그려낸 국립발레단 출신 김지안의 '악마의 선율 파가니니 II'를 볼 수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커를 주제로 인간의 잔인성을 그린 최진수의 'The eyes from a cage',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한 인간 존재의 힘을 발레로 표현한 고현정의 '코나투스: 존재의 힘', 다크서클즈컨템포러리댄스의 '변형된 기억' 등 독특한 발상의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오페라극장에서는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가 공연된다. 야외무대에서는 서울발레시어터의 '브라보! 모던발레', 국립발레단의 '발레갈라', 유니버설발레단의 '라 바야데르 갈라'가 축제기간 매주 토요일 열린다. 자세한 공연일정은 발레축제 홈페이지(www.bafeko.com)를 확인하면 된다. 문의: 02) 580-1300 /김민준기자 mjkim@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31st International Congress on Occupational Health



산업보건의 글로벌 하모니-세계를 하나로

제 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Global Harmomy for Occupational Health – Bridge the world

31st International Congress on Occupational Health

전 세계 안전보건의 최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제 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자 : 2015.5.31(일) ~ 6.5(금)
- 장소 : 코엑스(COEX)
- 주최 :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대한직업환경의학회(KSOEM)
- 후원 : 고용노동부
- 공식 웹사이트 : www.icoh2015.org

주최 ICOH CIST 안전보건공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후원 고용노동부

박한별·다솜 '정글 여신' 동시 출격

SBS '정글의 법칙' 19번째 생존지 '얍'

박한별과 다솜이 정글 여신으로 동시 출격한다.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은 전혜빈·유이 등 당찬 홍일점을 등장시켜 화제가 됐다. 두 명의 여자 스타가 출연하는 건 처음이다.

27일 양천구 목동SBS에서 열린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인 얍' 제작발표회에서 박한별은 "출연 제의를 받고 걱정을 했다. 기존에 나왔던 여배우들은 벌레도 잘 잡고 잘 먹더라. 나는 그에 비해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꾸미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얼핏 보면 좋지 않게 비춰질까봐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얍이라는 섬은 가겠다고 마음 먹기 힘든 장소다. 또 텐트 없이 비를 맞으며 자는 걸 경험했다"며 "'정글의 법칙'에서만 겪을 수 있는 일을 해서 좋았다"고 덧붙였다.

다솜은 이날 "어렸을 때부터 오지 탐험에 대한 환상이 커서 '정글의 법칙' 애청자가 됐다"며 "소속사에도 항상 출연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느 날 스케줄이 추가 돼 있더라.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특히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신경 쓸 게 없어서 좋았다. 또 가스레인지가 아닌 우리가 만든 불로 요리를 해 먹은 것도 신기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글의 법칙' 19번 째 장소 얍은 미크로네시아 제도에 위치해 있다. 때 묻지 않은 원시림과 바다, 풍부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이다. 특히 돌을 돈처럼 쓰는 지역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박중원 PD는 이날 "'정글의 법칙'은 자연의 특색을 살리는 방송이다. 인위적인 걸 추가하면 유치해진다. 그러나 달러 같은 지폐와 달리 얍의 돈인 돌은 원시적, 화폐의 시초라고 생각해 생존 법칙에 도입하게 됐다"고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29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배우 박한별과 씨스타의 다솜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SBS목동에서 열린 '정글의 법칙 얍'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TV 하이라이트

'국민MC' 유재석 잡는 '국민 욕쟁이' 김수미

◆ KBS2 '해피투게더 3'

오후 11시10분

'국민 욕쟁이' 김수미가 걸쭉한 입담으로 '국민 MC' 유재석을 당황하게 만든다. 이날 방송엔 배우 김수미, 배종옥, 윤현숙, 변정수가 출연해 거침없는 토크를 펼친다.

특히 김수미는 "유재석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15년 전 유재석이 보조MC로 활동하던 시절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그는 "유재석이 녹화 도중 갑자기 사라져서 한참을 찾았다. 알고 보니 긴장해서 물을 마시러 간 거였다. 그때 당황해서 입가에 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타났다. 그래서 재는 1년 안에 사라지겠는데?"라고 예언했던 사실을 밝힌다. 이어 유재석을 향해 "언제까지 해먹을 거야? 명수한테 넘겨"라고 돌직구를 날린다. /정리=김지민기자 langkim@



◆ JTBC '썰전'

오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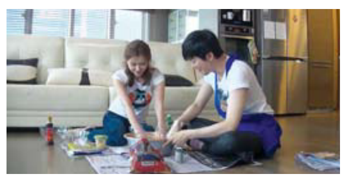
KBS2 금토드라마 '프로듀사'를 집중 분석한다. 서장훈은 "어릴 때부터 KBS 화면은 왜 다른 방송사 화면과 색이 달라 보이는지 의문이었다. 이번에 '프로듀사'에서 김수현씨를 보니 MBC·SBS는 화사하게 나오는데, KBS는 날 것 그대로 나오는 느낌"이라고 지적한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박지윤은 "100% 공감한다"며 서장훈의 말에 힘을 싣는다.



◆ JTBC '님과 함께 시즌2'

오후 9시 40분

가상 부부로 연을 맺은 배우 장서희와 가수 윤건이 생애 첫 깍두기 담그기에 도전한다. 요리를 전혀 배운 적 없는 두 사람은 즉석 카레와 냉동 만두로 끼니를 때우다 지쳐 반찬 만들기에 도전한다. 이들은 '설렁탕집 깍두기'를 만들겠다며 사이다를 넣고, 배 대신 배맛 음료수를 추가해 신개념 깍두기를 만들었지만 맛은 꽤 그럴싸했다는 후문이다.



◆ SBS '자기야 백년손님'

오후 11시 15분

배우 정한용이 전 재산을 부인 명의로 해놓은 사연을 공개한다. 그는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다"며 "아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벌써 파산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내에게 매달 용돈을 타 쓰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사용 내역 문자는 아내에게 발송된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8일 (목)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49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스쿨랜드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오늘부터 사랑해 (39회)	15 불굴의 차여사 (100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117회)	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30 EBS 뉴스 50 청춘! 세계도전기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14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14회) 55 불후의 재발견 (4회)	55 딱 너 같은 딸 (9회)	00 SBS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KBS 다큐 1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복면검사 (4회)	00 맨도롱 또똣 (6회)	00 가면 (2회)	45 다문화 고부 열전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라밤바>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일하는 당신 행복하십니까	15 해피 투게더	15 경찰청 사람들 2015	15 자기야-백년손님	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3회)	
24시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4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인성채널e (재) 10 EBS 스페이스 공감 (1127회)	30 최고의 교사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유자식상팔자 (103회) (재)	50 오늘 뭐 먹지?				◆ 프로야구 18:30 KIA-한화 SPOTV+ kt-LG MBC SPORTS+ 롯데-SK SKY SPORTS 두산-NC SBS SPORTS 넥센-삼성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00 오늘 뭐 먹지? (62·65회)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8회)		
20시	50 JTBC 뉴스룸	00 삼시세끼 정선편 (2회) (재)	00 오늘 뭐 먹지? (66회) 30 올리브쇼 2015 (18회)	00 <태고의 땅 몽골>4부 메마른 땅, 고비	10 주말 N 영화 (515회)	
21시	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4회)	40 한식대첩 3 (2회)	30 한식대첩 3 (2회)	00 검은 독사, 블랙맘바	20 셔터 아일랜드	
22시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9회)		
23시	00 썰전 (117회)	00 문제적 남자 (14회)	00 한식대첩 3 우승자레시피 (2회) 20 오늘 뭐 먹지? (66회)	00 배틀그라운드 브라더스 2부		
24시	20 5일간의 썸머 (2회)	20 집밥 백선생 (2회) (재)	00 한식대첩 3 (2회)	00 콜드 워터 골드 (1회)	00 장화,홍련	

강정호 결승타 포함 멀티히트



강정호, 8경기 연속 안타
5-1로 피츠버그 승리 이끌어
추신수, 몸에 맞는 볼 2개만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결승타를 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강정호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 4타석 3타수 2안타 1타점 1사구를 기록했다.

클린트 허들 피츠버그 감독은 이날 3루수 조시 해리슨을 우익수로 돌리고 강정호에게 3루를 맡겼다. 이어 닐 워커(2루), 조디 머서(유격수)로 내야진을 꾸렸다.

강정호는 첫 타석부터 타점을 챙겼다. 1회말 2사 1, 3루에서 마이애미 선발투수 호세 우레냐의 초구 직구를 받아쳐 중견수 방면으로 흐르는 1타점 적시타를 날렸다.

3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는 좌중간으로 타구를 날린 뒤 공격적인 베이스러닝으로 2루까지 갔다. 5회말 유격수 땅볼로 물러난 강정호는 8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다. 이날 멀티히트로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316(95타수 30안타)까지 올라갔다. 타점은 12개를 기록중이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타점과 워커의 투런 홈런 등을 묶어 5-1로 승리했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2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안타 없이 볼넷과 몸에 맞는 공으로 두 차례 출루했다.

추신수의 타율은 0.233(159타수 37안타)으로 조금 떨어졌다. 텍사스는 8회 미치 모어랜드의 결승 솔로포로 4-3으로 승리해 7연승을 달렸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메시, 스페인 '올해의 선수' 선정

56%로 35% 호날두 제쳐



메시와 호날두.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28)가 라이벌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0·레알 마드리드)를 제치고 프리메라리가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

미국 ESPN은 최근 스페인 일간지 AS가 실시한 '올해의 라리가 선수' 투표에서 메시가 55.87%를 얻어 35.37%에 그친 호날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메시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만 43골을 넣으며 바르셀로나의 통산 23번째 우승을 이끌었다.

이번 시즌 득점 순위에서는 호날두(48골)에 밀렸지만, 1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5.89%를 얻은 레알 마드리드의 하메스 로드리게스(24)와 1.7%를 획득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앙트완 그리에즈만(24)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김민준기자



27일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 레퀴야-알 사드 경기에서 알 사드의 이정수(왼쪽)가 레퀴야의 이스마일 모하메드의 슛을 육탄방어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레퀴야 '남태희'·알 힐랄 '곽태휘' 나란히 8강

AFC 챔피언스리그

중동에서 뛰는 남태희(레퀴야)와 곽태휘(알 힐랄)가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했다.

레퀴야(카타르)는 27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나세르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 사드(카타르)와의 대회 16강 2차전 홈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1차전에서 2-1 승리를 거둔 레퀴야는 1, 2차전 합계 4-3으로 8강행을 이뤘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남태희는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풀타임을 뛰며 무승부에 힘을 보탰다. 알 사드의 이정수 역시 풀타임을 뛰었다.

알 힐랄(사우디아라비아)은 사우디 리야드의 킹 파드 스타디움에서 이란의 강호 페르세폴리스를 3-0으로 꺾으며 1, 2차전 합계 3-1로 8강에 진출했다. 곽태휘는 중앙수비수로 풀타임을 뛰었다. /김민준기자



이를 악물고… 2015 프랑스오픈 테니스 여자단식 1회전에서 랭킹 1위 세리나 윌리엄스와 격돌한 안드레아 흘라바치코바가 힘차게 리턴을 하고 있다.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는 야르코 니에미넨(87위·핀란드)을 3-0으로 꺾고 2회전에 진출했다. 여자랭킹 1위 윌리엄스도 가볍게 2-0으로 승리했다. /AP연합뉴스

'블래터 비리' 수사 본격화

FIFA 고위간부들 체포 미국 압송



미국이 오는 29일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선거를 앞두고 제프 블래터(79·스위스·사진) 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나섰다.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당국은 27일 오전(현지시간) FIFA 고위관료들을 전격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뉴욕타임스는 붙잡힌 FIFA 고위 간부들이 과거 20년간 FIFA의 광범위한 부패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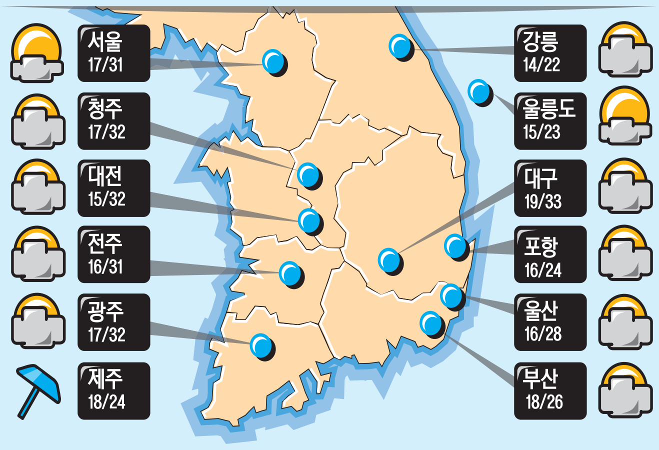
FIFA는 1998년 블래터가 회장에 오른 이후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으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57억 달러(약 6조3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국 결정 과정 뿐아니라 마케팅,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뇌물 등 부패 의혹을 받아왔다.

이번 체포는 차기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FIFA 총회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블래터 회장의 5선 도전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김민준기자

날씨

5/28 목 일출시각 05:14 일몰시각 19:4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4					9	
9					4			
						2	5	4
		1	8		3		4	
		9		5		7		
	4		1		6	8		
6	3	2						
			2					8
	9					4	7	

		5					4	3
	7	1					9	
3				9				
				5				2
5	9		4	3	6		7	1
6				1				
				6				9
	5					7	2	
1	4					3		

스도쿠 정답

2	5	4	6	8	7	1	9	3
9	1	3	5	2	4	6	8	7
7	8	6	9	3	1	2	5	4
5	2	1	8	7	3	9	4	6
8	6	9	4	5	2	7	3	1
3	4	7	1	9	6	8	2	5
6	3	2	7	4	8	5	1	9
4	7	5	2	1	9	3	6	8
1	9	8	3	6	5	4	7	2

9	6	5	1	8	7	2	4	3
4	7	1	6	2	3	5	9	8
3	2	8	5	9	4	1	6	7
7	1	4	9	5	8	6	3	2
5	9	2	4	3	6	8	7	1
6	8	3	7	1	2	9	5	4
2	3	7	8	6	5	4	1	9
8	5	9	3	4	1	7	2	6
1	4	6	2	7	9	3	8	5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5월 세무대란에 국세청 안내전화도 먹통

소비자 119



5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재정산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1500만 여명의 납세민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세무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하지만 납세자들의 불만과 답답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선 세무서 창구에는 예년처럼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 줄 알고 찾았다가 헛걸음하고 돌아가는 시민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 하면, 국세청 안내전화(126번)는 27일 현재 안내원과의 통화 연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반 기업들도 이미 시행한 연말정산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탓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업계는 느닷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68만 곳은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 근로자에 대해 5월 말까지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인센티브나 외부 원고료, 강연료 등 월급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 특히 헷갈려 하고 있다.

회사원 ㄱ씨는 "지난해 8월 회사를 사직해서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았고 월급 이외에 사업소득도 있다" 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읽어봐도 나 같은 경우에 신고를 5월에 하라는 건 지 6월에 하라는 건 지 조차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공적연금소득자 등은 회사에서 일괄 재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중 회사를 통한 재정산을 거친 후 6월 2일~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뒤 개인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중복적으로 하면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로 연장됐다.

회사 폐업과 퇴직으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 2일~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강민규기자 unha@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퇴직 후 노후걱정… 다단계 사업 괜찮을까요
어느 곳이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좋을 듯

노짱1 여자 57년 11월 9일 양력 7시 45분

Q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본의 아니게 퇴사 한 후 4년간을 비정규직으로 이 회사 저 회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돌아 다녔습니다. 현재는 봉고차를 끌고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데 쫓겨 다니기 바쁩니다. 가정의 경제가 빈약한데 얼마 전에 저의 친구가 알뜰 폰을 판매하고 물건을 사서 쓰면 포인트가 쌓여 그것으로 돈도 되고 핸드폰 비용도 대납이 될 수 있는 사업자를 모집 한다고 하여 제 사주팔자에 이러한 사람 대응하여 하는 일이 적합한지 알려주세요. 요즘 이런 종류에 다단계사업을 해보라는 권유가 하루에 1~2건씩 들어오고 있어서 정신없습니다.

A 포인트가 쌓여 돈이 된다고들 하나 기본 투자 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군요. IT유통업종으로 진출하는 것이 운에서 인연은 되었으나 잠시 흐름이므로 오래가지 않는 기운입니다. 돈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봉고차를 다시 팔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시려면 성실한 정재(正財)운도 아직은 있으니 어느 곳이던 간에 직장에 다니는 것이 차라리 좋을듯합니다. 을목(乙木)사주가 록왕지(祿旺地)로 가는 운이며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라는 화초가 화기(火氣)가 절실한데 운에서도 사오미(巳午未)따뜻한 남방으로 전개되고 있으니 이리왈 저리왈 흔들리지 말고 신념을 갖도록 하십시오. 친구가 이러한 때 도와주기위해 권유하는 사업을 의심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하고 싶다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더 잘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첫째로 처음부터 수백만원이나 되는 큰돈을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하며 임대료나 종업원이 없는 무점포사업이어야 하겠지요. 포인트 사업이라 할지라도 물건을 사서 싸 놓지 않으며 A/S가 필요 없는 일로서 현재 시대적인 대세를 타고 있는 일인지를 알아보세요. 이제는 OFF라인에서 장사를 하는 시대가 ON라인에서 사업이 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귀하 자신의 능력과 경륜을 보아 생활에 누구나 필요한 것인지를 보고 알아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인식에서 귀하가 할 수 있는 일임을 살펴보아야 중도 하다 말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것은 비정규직이라도 다시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지만 아니면 비온 뒤땅이 굳는 법이니 현재 어려워도 새롭게 시작한 일을 열심히 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5월 28일 (음 4월 11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쥐 — **48년생**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년생**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습니다. **72년생**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84년생** 스트레스는 받는 즉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소 — **49년생** 사업을 확장하면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61년생** 여행은 떠나지 마세요. **73년생** 지금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85년생** 큰 금전거래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호랑이 — **50년생**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할 때입니다. **62년생** 어려운 일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4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86년생** 주위의 유혹을 이겨야 가능합니다.

토끼 — **51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3년생** 반드시 길하게 됩니다. **75년생** 순리에 따르도록 하세요. **87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려 하지 마세요.

용 — **52년생** 시야를 넓게 가지세요. **64년생** 단계를 밟아 올라가도록 하세요. **76년생** 반드시 꿈이 이루어집니다. **88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뱀 — **53년생**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65년생** 긴장이 풀려 몸을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7년생** 어려울 듯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89년생** 모든것에서 승승장구합니다.

말 — **54년생** 뜻대로 밀고 나가세요. **66년생**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운을 타고 있습니다. **78년생**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은 거의 함께 합니다. **90년생** 만인이 공로를 치하하며 받들게 됩니다.

양 — **55년생** 여태껏 치성을 드린 보람이 있겠습니다. **67년생**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79년생**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91년생** 배우는데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원숭이 — **56년생**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68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80년생** 수양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92년생** 조급해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닭 — **57년생** 새로운 자세로 일에 임하게 됩니다. **69년생** 하늘의 뜻이 곧 나의 뜻이니 어찌 이루지 못하리요. **81년생** 목표가 높아 올라가는데 힘이듭니다. **93년생** 길흉화복합니다.

개 — **58년생** 큰 소원도 능히 성취할 것입니다. **70년생** 시간을 낭비 해서는 안됩니다. **82년생**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세요. **94년생** 여행 도중 꿈속에 그리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돼지 — **59년생** 매사에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71년생**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83년생** 생각도 못했던 일로 즐거워집니다. **95년생** 면접운이 매우 좋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모병제가 낫다



송병형의
다른 생각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다. 공부해야 할 시간에 알바로 푼돈을 버느라 매일 고되지만 그래봐야 졸업하자마자 빚쟁이 실업자 신세다. 힘겨운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기성세대들조차 청년들에게 감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겠다고 고백할 정도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청년들의 미래가 갈수록 암담하다며 청년일자리법안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청년의 절반에게는 기성세대 대부분과 대통령이 잘 모르는 고통이 하나 더 있다. 절반의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만이 아는 고통이다.

기계적 형평성에 치우친 엉터리 입영신청제도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병무청은 청년들에게 입영용 스펙을 강요한다. 원하는 보직에 적당한 스펙을 쌓을수록 경쟁에서 이겨 입대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은 강변한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하는지 수십 번을 떨어진 청년들조차 제대로 모른다. 심지어 가리지 않고 모든 기회에 다 신청한 청년들이 모조리 떨어지기도 한다. 입영 스펙을 쌓으라는 병무청의 말의 진위조차 의심스럽다.

메트로신문은 청년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 입영신청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보도해왔다. 그 과정에서 병무청의 문을 계속 두드렸다. 하지만 병무청은 '형평성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에서 떨어졌다면 본인이 문제지 뭐가 문제될 게 있느냐'는 태도로 일관했다. 오히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 문제라고 훈수까지 뒀다.

과거 병역특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병무청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때마다 각종 병무비리가 어김없이 드러났다. 병무청이 그토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병역은 능력이 안 돼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대학입시가 아니다. 헌법이 강제하는 국민의 의무다. '더러워서 안가고 말지'라며 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병무청의 태도는 모병제 국가인 미국에나 어울린다.

특히 병무청은 겉으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들끓는 민원을 가라앉히기 위해 수십 번 떨어진 청년에게 군대의 빈자리를 알선했다는 게 최근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원칙도 없었다. 그저 문제가 불거져서 알게 되면 대응하는 수준이었다. 병무청 담당자는 지방병무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다. 공식입장이라고 나중에 한 말은 또 달랐다. 단지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무마에 나섰다. 병무청의 공식입장은 항상 이런 식이다. 숨기기에 급급하다. 그토록 강조하던 원칙은 오직 공식입장에만 존재한다. 이럴 바엔 차라리 모병제가 낫다. /정치부장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개미투자 주의보



기자 수첩
김 보 배
<경제부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큰 폭으로 확대된다.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와 시장 효율성 증대 등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정작 개미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17년 만의 확대 정책이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 완화장치와 단계별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정지) 제도 도입 등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거래소는 이로써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드는 상한가 굳히기, 가격제한폭 근처의 주가에 비합리적 경쟁심리로 투자자들이 유인되는 자석효과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가가 신속하게 균형가격을 찾아 시장가격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높이고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 후 하루평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변동성은 줄어든 경험에 비춰보면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가격제한폭 확대 폭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가격제한폭이 ±30%까지 확대되면 이론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다. 가령 주당 1만원 짜리 주식을 상한가인 1만3000원에 샀다가 하한가인 7000원에 판다면 47%의 손실을 입게 된다. 반대로 하한가인 7000원에 산 것이 상한가인 1만3000원에 판다면 85%의 수익이 난다. 연속 상한가와 하한가로 이어지면 여파도 배가 된다.

일각에선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경고하며 개미투자자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유통시가총액대비 코스닥 상장사의 신용잔고가 코스피 상장사보다 7배 이상 많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신용(외상)거래 비중이 높은 상장회사 투자에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며 '투자주의보'를 내리고 있다.

증권시장을 성장시키는 힘은 단연 성장 기대와 유동성이다. 여기에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은 윤활유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다만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바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면 시장 선진화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비만의 원인, 독소 잡는 음식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과식, 스트레스, 기름진 음식, 춥고 습한 환경 등은 모두 우리 몸에서 독소를 유발할 수 있다.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면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고 신진대사가 둔해지면서 지방 연소도 잘 이뤄지지 않아 결국에는 살이 찌기 쉬운 상태가 된다.

몸이 차거나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면 담음이라는 걸쭉한 독소가 발생한다. 담음이 생기면 위장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소화흡수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장기간 지속이 되면 살이 찌게 된다. 이럴 때는 위장을 따뜻하게 덥혀서 소화흡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생강차가 도움이 된다. 생강은 위액의 분비를 촉진해준다. 그래서 불편한 속을 편안하게 다스려주며 신진대사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담음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고 담음으로 인한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혈액 속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혈액이 탁해지고 어혈이라는 독소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자궁에 어혈이 발생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등이 나타나기 쉽고, 기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살찌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처럼 어혈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졌을 때는 복숭아씨앗으로 만든 도인차가 도움이 된다. 도인차를 자주 마시면 어혈을 풀어주며 생리 관련 증상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수분대사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불필요한 수분은 몸 밖으로 잘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독이 발생하면서 몸이 잘 붓고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수독이 있을 때는 이뇨 작용을 하는 팥이나 율무가 도움이 된다. 팥은 수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수분 배출을 촉진한다. 팥에 들어 있는 비타민 B1은 피로를 덜어주는 데도 좋다. 다만 찬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이지만 몸이 찬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다. 율무도 몸 속의 습한 기운, 수독을 제거해준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몸이 잘 붓고 살이 찌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Former Prosecutor Park Min Shik "Economical Concern Remains"

Not only the government affairs but also the greatest task of saving the economy, is the concerns of a current congressman. This was not an opinion from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but from Saenuri Party. Not just any member, but a person who used to work under Hwang Kyo Ahn in the prosecutor's office.

Congressman Park stated on T.V that nominee Hwang may lack the sense of government affairs. Then he added that the Prime Minister is a position where he must lead all departments, but Hwang may lack professional experience, but can overcome such factors with flexible mindset, ability to control and etc.

Congressman Park was in charge of the wire tapping cas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2005 at Seoul Central Prosecutor's office. Park once posted his opinion on how unfair the personnel affair was on the prosecutor's network.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황교안 모셨던 박민식 의원도 "경제는 좀 걱정돼"

"법조인 출신이라 정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제일 큰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좀 취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현역의원의 평가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말이 아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나온 말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황 후보자를 차장검사로 모시고 일했던 박민식 의원의 말이다.

박 의원은 26일 방송에 출연해 "(황 후보자에 대해) '정무적 판단 부분에 대해선 좀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히려 경청할만 한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다만 "총리가 각부를 통할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은 경력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율능력, 통할능력, 이런 것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변론을 붙이기는 했다.

박 의원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국가정보원 도청사건을 수사할 때 주임검사로 실무수사를 맡았다. 황 후보자는 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총괄했다. 2006년 황 후보자가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됐을 때 박 의원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인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